

'94 여름농촌활동 자료집

• • • •
여 성 농 민
포구



하나되는 사랑, 진솔한 만남

제 7 대 총 여 학 생 회

하나됨의 약속, 실천하는 사랑

제 6 대 이과대 여학생회

여 성 농 민

목표



하나되는 사랑, 진솔한 만남

제 7 대 중 여 학 생 회

하나됨의 약속, 실천하는 사랑

제 6 대 이과대 여학생회

94년 여름 농활 여농반 활동의 의의와 목표

1) 의의와 목표

- ① 4만 여학도와 기층 여성 농민과의 굳건한 연대의 장이다.
- ② 연세대학교의 여농반 활동은 국회비준 거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여성 농민과의 힘을 함께 모으는 장이다.
- ③ 여성농민에 대한 사랑으로 참여하고 애국으로 하나되는 세계 최고의 조직적 애국 활동이다.
- ④ 국회비준저지와 함께 여성농민 대개혁 쟁취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여성농민 대개혁에 대한 선전을 통해, 이후 지자체 국면에서 여성농민의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 ⑤ 여농반과 아동반의 유기적 결합으로 농촌 타아의 현실을 합의하고 이후 농촌타아소 건설의 대안을 마련한다.

2) 조직적 목표

① 여학생회 강화

여학생회의 두리로 있는 여학우들을 다시 한번 재조직하고 여학생회 조직을 탄탄히 한다. 엄혹한 시기에 예전보다 강도높은 농활의 의의와 목표를 수행해야 할 이번 여농반 활동은 철저히 사전교양 작업과 의식화, 실천투쟁으로 주체들을 단련시켜내고 이를 통한 여학우들을 다시 한번 여학생회 두리로 탄탄히 묶어내고, 또한 이는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조직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여성농민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오는 문제를 비롯해 그러한 현실이 되기까지의 이땅의 전반의 모순을 규정하는 원인인 미국과 김영삼정권의 본질을 합의하고 당면한 수입개방문제와 함께 상반기 힘차게 벌여내 양애리 학우 사건을 여성농민 현실에 맞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얘기하고 성폭력 특별법의 허구성과 반여성적인 김영삼정권의 보질을 알려낸다.

또한 여성농민 문제는 여성문제의 일부분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여성문제를 기층여성과의 굳건한 연대속에 여학우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여학생회라는 것을 여학우들에게 알려낸다.

또한 농촌 타아현실을 학우들에게 알려내면서 이후 타아후원회의 자봉단 모집으로 성과를 모은다.

② 농학 연대의 관점에서 여성농민회의 강화

준비과정인 여농반 간담회에서부터 여농회와의 올바른 결합을 통해 여학생회 강화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성농민과의 연대의 강화로 남아야 한다. 전체 변혁운동에서 이땅 2천만 농민이 차지하는 역할은 막중한 것이며 특히 그 절반 아니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계급 계층보다도 고통스런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 농민의 현실을 볼때 그 만큼 여성농민의 비중은 크다.

이러한 사실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고 여성농민들과 농촌 현장에서 함께 얘기하고 그들이 지역 여성농민회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여농반 활동의 가장 큰 과제이다.

그 전략적 방안은 먼저 농민회 소속 부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이분들을 여농회와 연결시켜낸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은 우리에게 더욱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여성농민회란?

1. 경북여성농민회 소개

*89년 3월 12일 <경북여성농민회>준비를 위한 소모임을 시작으로 수차례 준비 모임, 교육, 영양, 봉화, 안동, 성주 등지의 활동가들이 매달 모임

*90년 2월 27일 <경북여성위원회> 결성

*90년 2월 경산군 들불여성농민회, 청송군 현서면 여성농민회 결성

*92년 2월 24일 총회에서 <경북여성농민회>로 조직개편

2. 경북여성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도를 중심으로 각 회원, 활동가들이 산재해 있고(청송, 봉화, 의성, 예천, 상주, 고령, 경산, 안동) 지역에 따라 군, 면 마을모임이 실정에 맞게 꾸려지고 있다.

-- 상주 한마을회, 경산군 들불여성농민회, 청송군 현서면 여성농민회, 의성 동변동 마을 여성농민회, 고령군 반딧불회원 부인 모임등의 조직이 있다.

*지역이 매우 넓고 지역간 교통여건이 불편한 지역실정상 경북여성농민회는 청송, 영양, 안동, 의성, 봉화를 1지구로, 예천, 상주, 선산, 문경을 2지구로, 금릉, 고령, 경산을 3지구로 나누어 지구총무를 1인씩 두고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

*초창기 도를 중심으로 도구실을 튼튼히 꾸려나가면서 교육, 선전, 조사 등을 통한 각 지역단위 군, 면, 마을 여성농민회 조직활동을 지원한다.

*이제 경북여성농민회는 조직을 실정에 알맞게 개편하고 활동가들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지역대중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여성농민 대중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여성농민 대중조직화와 활동의 모범을 세워내야할 시점에 서 있다.

'94 여름농활 여성농민 관련분반활동을 제안합니다.

경북 여성농민회

1. 제안의 배경

여성농민이란 농민생산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를 말하며 농촌거주 비농민 여성을 포함하는 지역 계층적 개념의 농촌여성 농촌부녀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농촌에서 '농업소득을 주도하여 살아가는 농가 여성'의 경우라도 존재양태는 다양하다. 또한 연령별 분포도 각자 다를 뿐만 아니라 존재양태에 따라 관심의 영역도 다르다. 즉 이제 막 결혼한 세대, 6세 미만의 아이를 두고 육아를 담당하는 부분취업 여성농민, 40-50대의 전업종사 여성농민, 노인여성등 농업과 관련한 자신의 조건속에서 모두 다른 이해관계와 사회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농활은 여성농민반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위적으로 농업, 농민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비구체성을 띄움으로 성과를 내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농업의 위기속에서 정부의 대농민 정책은 농업과 농민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농업, 농민, 농촌을 분리하여 농업, 농민에 대한 대안은 없이 농촌에의 지원을 통한 가시적 주변환경의 변화로 농업해체, 농민말살 정책의 결과를 무마하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재촌탈농을 지원하여 농업농민없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농촌에 아무리 돈이 많이 풀리고 지원이 와도 농업농민과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정세속에서 당면한 농업의 위기를 막고 대안있는 주체로 세우는 일은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구체적 대안의 제시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지난 시기 활동의 반성평가속에서 여성농민 농활의 과학화와 구체적인 대안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2. 여성농민관련 분반의 범위

-여성농민반: 4-50대 청장년 여성대상의 전업, 부분취업여성농민활동이 주.

-아동반: 국민학교 학생대상

-유아반: 3-6, 7세 미취학 어린이

-노인여성반: 농업에 부분적 보조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나 대체로 노인층의 가지고 있는 여성층

이해를

3. 여성농민 관련 분반 활동의 목표와 방향

1) 농활시기 여성농민운동의 목표

▷국회비준저지와 여성농민대개혁 쟁취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국회비준 저지에 대한 선전, 서명작업과 여성농민대개혁에 대한 선전을 통해 국회비준을 막고 이후 지자체 국면에서 여성농민의 이해를 실현할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각 지역 활동의 활동가 구심을 확고히 한다.

2) 관련 분반활동의 방향

▷여성 농민반: 여성농민운동과 동일

▷아동반: 아이들과의 재미있는 놀이와 학습등에 치중한 제도교육의 보완

이나 장기적 대안없는 일회적, 일시적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의 대안을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찾아나갈수 있는 계기로 농활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서기위해 필요한 지방자치와 교육, 농촌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 아동발달상황등을 토대로 농촌공부방, 공동육아와 교육대안등을 선전.

▷유아반: 보육의 사각지대인 농촌아이들에 대한 정부대안의 요구와 여성 농민들의 육아현실속에서 공동육아의 필요성, 구체적인 실현과정에 대한 소개로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부모와 지역사회가 육아의 주체로 서도록 안내.

▷노인여성반: 전체 농가인구의 23.4%를 차지하는 노인문제가 잘못된 농정에 기인하고 농민으로 취급되기 보다 농업생산에 의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야한다. 노인 문제 농민문제등에 대한 대안을 선전하고 조직적 요구 실현이 조직화하도록 한다.

4. 여성농민 관련 분반활동의 준비와 운영

▷각 분반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반원들이 필요 여성 농민 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준비과정으로부터 관련분반이 함께 모여 준비내용을 점검하고 주체를 세우는데 주력한다.

▷평가를 함께하고 본 활동시에는 통합반 운영도 실시한다.

5. 통합 분반활동의 필요성

여성농민들은 대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아동반, 유아반 중고등반은 자체분반 활동만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육아와 교육의 당사자요 주체의 하나인 여성농민반과의 연계와 분반통합으로 분반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6. 여성농민 관련 분반활동을 잘하기 위해 할일

1) 각급 단위의 주체를 반드시 세워낸다. 주체가 바뀌지 않도록 한다.

(여성농민 관련분반담당주체를 학교단위로 반드시 세운다.)

2) 교양을 강화하고 교양시에는 통합교양과 분반교양을 꼭 함께 하여 통

합교양에서는 여성농민 문제와 현시기 과제, 여성농민 관련분반의 연계 종합활동의 중요성등을, 분반교양에서는 각 분반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교양하도록 한다.

3)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하게 준비하자.

4)통합 평가회를 꼭 조직하자.

7. 여성농민복지 대책

1)문제점

*기본전제

▷농촌부녀자, 농민배우자의 개념정산

▷생산농민으로써의 여성농민, 농어촌 후계인력으로서의 여성농민 관점견지

▷따라서 여성농민에 대한 복지대책과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복지대책을 구분해야 한다.

▷노동과 생활, 주거공간이 일치하는 농업, 농촌, 여성농민의 특성상 농업개혁이 구조적 문제와 아울러 여성농민 복지대책의 마련과 시행은 매우 시급하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①여성농민 건강권 확보와 한계

▷여성농민의 과중한 농업노동(여성농민의 91.7%가 한가지 이상 질병에 시달림)으로 인한 질병(농약중독, 특작지역의 하우스병등 농부중, 근육, 관절, 피부질환등)

▷모성보호에서 소외(출산후 3일만에 일을 나간 여성이 66.6%, 일주일만에는 26.2%) 따라서, 각종 부인병및 임신, 출산 으로부터 산후병의 농업노동과 연계되어 훨씬 가중됨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관련 정책에서의 소외, 산아제한 위주의 가족계획정책, 잦은 유산으로 후유증 심각

②농업 노동권 보장 차원의 육아, 탁아에 대한 사회적 장치부재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농민 45.1%가 일반 여성농민과 동일한 농업노동, 미취학 아동 47%가 부모가 일하는 동안 혼자 방치

▷농어촌 지역의 민간 탁아시설 태부족

(있다고 해도 농촌형편상 탁아비 부담불가능)

▷농촌 상설 탁아 농번기 탁아소 실태 거의 전무상태

③농촌주거, 생활환경, 낙후된 문화혜택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

▷가사노동의 강도가 도시에 비해 훨씬 높음에 비해 농가의 동선, 지레식 주거환경이 여성농민의 노동강도를 훨씬 높임

▷지레식 화장실, 상하수도, 쓰레기 방치-농촌의 생활환경오염 심각

▷도로, 농로 폭이 좁고 비포장 많음, 가로등 설치부족-밤길 위험

(성격 불안조성)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아무도 시집오려하지 않는 농촌의 사회적 소외, 문화적 박탈감 극심

▷남성에 비해 문화적 욕구를 분출할 기회와 장소 전무-농번기 전후로 관광가는 것이 전부

3)요구되는 복지대책

①여성농민이 건강권,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대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일원화

▷1개 군단위에 최소한 수술시설과 인력을 갖춘(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 설립, 운영자금 지원

▷보건소의 예방의료기능 대폭 강화

(농어민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각종 예방주사및 예방진료의 순회실시)

▷보건의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응급 처치술, 한방의 기본교육,

농부중, 농업관련 질병의 산재처리

면단위 모자보건센터, 산모원설치의 의무화

▷여성농민 임신부에 대한 무료 정기검진, 상담, 교육 실시

▷여성농민에 한하여 산전 산후 조리기간 확보를 위한 출산수당 지원

②여성농민의 노동권 보장, 농촌 아동보호차원의 복지대책

▷농촌지역에 국, 공립 상설탁아소 설치

▷국민학교 병설탁아소 기본설치, 지역별 탁아수요에 근거한 탁아소 설치

▷과도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농번기탁아소의 지원예산 대폭 확충, 면 이하 상설탁아소 우선 지원

▷공부방, 유아원, 1인1기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센터를 면단위 이하 마련

③주거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주택개량, 상하수도 설치사업 자금 지원

(면단위 상, 하수도 관리소 설치-수질관리, 생활하수처리 관리등)

▷자연부탁마다 공동분리 쓰레기장 설치 쓰레기 수거의 제도화

▷마을내 공동목욕시설, 세탁장시설 설치및 운영자금 지원

▷마을 진입로와 마을내 가로등 설치, 전기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농촌의 연탄, 석유, 가스등 연료공급의 원활-공동구입사업 지원, 배달료 부담경감

▷농촌 교통문제 대폭 개선(마을버스 운영, 도로포장 등)

▷생활품 구, 판매시설

▷농촌가정내 폭력이나 봉건적 억압등으로 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성농민쉼터 운영및 지원

④면, 군단위에 문화, 오락, 사회교육시설등을 공립으로 설치, 운영

▷마을회관의 증개축, 공부방, 독서실, 회의실, 사랑방등으로 이용 시설, 운영자금 지원

▷면단위의 체육, 오락, 교육, 교양, 예술, 문학등의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청소년, 여성, 노인등 계층과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면 종합복지센터 설치)

▷여성농민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정보등에 관한 사회교육프로그램 마련

8. 농촌 노인복지 대책

1)현황

▷농가인구 60세 이상 고령농민이 93년 말 현재 1,267천명(23.4%)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노인단독가구 60%이상

▷농업소득보다 이전소득지대

▷평생 농업노동으로 건강악화

- ▷자녀들의 이농으로 경영이양 불가피
- ▷노후생계 불안, 노인복지제도 부재로 무력감, 상실감 극심

2)문제점

*기본전제

- ▷잘못된 농정, 농가경제피폐의 직접 담지자, 피해자
- ▷농촌의 노령인구의 하나로 취급되기보다는 농업생산을 담당한 농민으로써 기여도 인정
- ①과중한 농업노동, 고령으로 인한 질병
- ②빈곤-농업으로 생계 불가능, 이천수익 기대
- 현재 생활보호대상지정의 문제, 생활보호대책 자체로 생계유지 불가능
- ③농촌의 사회문화시설 전무, 노인복지제도 전무

3)요구되는 복지대책

- ▷통합의료보험 실시
- ▷노인성 질병, 농부중등 농업노동과 고령에 따른 의무진료, 무료정기검진 실시
- ▷노동능력 유무와 역량에 맞는 소득원 마련-노인고용형태, 노동조건등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마련(마을내, 면이하 공동작업을 통한 소득원 마련)
- ▷농민연금, 경영이양에 따른 지원책, 노후생계및 사회보장차원의 복지대책 필요
- ▷자연부락단위의 경로당, 사랑방(여성)을 마을회관내에 설치, 낙후된 기존시설은 대폭 개선, 운영및 관리비 지원
- ▷면이하 노인종합 복지센터 운영(특히 노인성 치매등 건강, 의료상담센터 설치)
-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 필요

9. 농촌 아동복지

1)현황

- ▷90년 현재 전체 아동수(0-7세, 미취학 까지) 5,419,067명 중 농촌지역 거주아동 453,366명으로 0.8%임
- ▷농촌지역 탁아소, 유아원등 아동복지 대책 전무
- ▷농촌 아동 질병에 의료대책 미비

2)문제점

*기본전제

- 0.8%밖에 안되는 소수라고 해서 농촌지역의 아동문제를 단순한 수치의 비교나 효율성 측면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단 한명이건 열명이건 존재하는 어린이에 대한 동등한 양질의 복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 ①농촌어린이들이 제대로 양육, 보호받지 못한채 가정과 농촌환경 속에서 방치되어 있다.
(부모의 가중한 농업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한채 가정에 가두어 지거나, 위험한 환경-농약, 포장안된 수로, 저수지 등에 노출되어 있음)
- ②취학전 아동에 대한 사회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대책이 없다.
(탁아소, 공설유치원 등)

- ③놀이터, 오락실 등 문화시설 및 다양한 소질개발 기회 차단
- ④위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농촌 거주 어린이들의 소외감 유발
- ⑤또래 집단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회성, 전인적 인격형성의 기회 차단
- 3)요구되는 복지대책
- ①농촌지역 국공립 탁아소 우선 설치(조기교육 담당)
- ②마을 및 면단위 유아원, 공부방, 유치원 설치 및 재정지원
(단 면단위의 경우 교통문제, 우선 해결)
- ③농어촌 아동의 의무검진, 예방접종 범위 확대

아이도 잘 먹지 않아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켰을 때

아이들은 과일이나 동전, 핀, 구슬, 단추 등 거의 아무거나 잘 삼키는 버릇이 있다. 별 어려움 없이 삼켰다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억지로 빵이나 밥을 먹일 필요는 없다. 며칠 동안 아이의 대변을 잘 살펴보고 삼킨 것이 나왔는지 확인한다.

1. 생선뼈가 걸리면

작은 가시일 때는 제채기를 하게 하면 쉽게 나온다. 또는 물을 마시게 하거나 밥 한 숟가락을 먹여본다. 2-3회 해도 안되면 깊이 찔린 경우이므로 병원에 데리고 간다. 뼈가 빠지면 물을 마시게 하여 상처부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나 큰 생선뼈가 걸려서 찌를 경우 이비인후과에 가서 빼야 한다.

2. 이물질이 걸리면

즉시 옆으로 누이고 입을 벌려 속을 살핀다. 손가락으로 혀 안부분을 눌러서 토하게 하면 대개는 나온다.

3. 바늘이나 핀을 삼키면

위험할 때 식도에 구멍이 뚫려 쇼크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다행히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면 다음날 아니면 수일 내에 변에 섞여 나오게 된다. 그러나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절대로 설사약을 먹이거나 토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농민반 활동, 왜 중요하나요?

1. 왜 '여성농민반'이라 하나요?

아직도 부녀반이라고 하는 농활대원은 없겠지요. 왜 여성농민반이라 하는지에 대해 잠깐 알고 갑시다.

여성농민반이라는 명칭은 여성농민, 농촌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농민은 전체 농업인구의 55.7%로 더 이상 농가주부나 농사보조자가 아닌 농촌의 주인이요 농업생산 노동의 주체입니다. 수입개방과 농촌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동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수탈당함으로써 이 사회를 규정하는 모순구조의 한편에 여성농민은 서게 됩니다. 이러한 계급적 처지로부터 여성농민은 사회변혁을 갈망하게 되고, 또 실제로 모순해결의 주체로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농민의 계급성과 자주적 진출에 주목하면서 여성농민들과 학생들이 만나는 여성농민반 활동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부녀반을 여성농민반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여성농민반 활동은 왜 중요하나요?

"여성농민반 활동은 너무 어려워요. 마을 아저씨들이나 아이들은 저절로 모여지는데 여성농민반은 한번 모이기도 어려운걸요. 애들도 여농반은 안할려고 하고..."

-----정말 그럴까요?

☞ 패배적 관점을 극복합시다.

농활기간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여성농민입니다. 여성농민들은 대개가 학생들의 활동에 호의적이며, 어머니의 품성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대견해 하십니다. 그리고 농촌활동의 대부분을 여성농민이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성농민반을 포기하고 농활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여성농민의 현상적 모습에 좌절하지 맙시다. 어머니들은 논일, 밭일 등의 농사일과 잠시도 쉴 틈 없는 가사일로 학생들이 준비한 모임에 가보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현실에 대해 체념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농민의 현실에 대한 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여성농민들을 억압하는 체제에 의해 강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여성농민들의 현실을 더더욱 주의깊게 이해하고 해결의 계기를 찾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여성농민의 조직화의 계기, 여성농민회를 튼튼히 하는 계기입니다.

농활에서 여성농민반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농민이 바로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조직의 주인이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농활기간 중 진행되는 여농반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중에서 특히 마을순회교육은 여성농민활동가가 여성농민대중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그 결과 여성농민 활동가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모색하게 되어 이후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몇차례의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한 모임이 조직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조직화'의 의미가 여성농민반 활동에 달려있습니다.

여성농민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농민해방, 인간해방의 당당한 일 주체이며 그 주체로서 우뚝서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과제가 급선무로 제기됩니다.

농활속에서 여성농민반 운영은 여성농민과 학생이 만나는 장이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이며 작으나마 조직적 성과를 얻어가는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분반활동시 유의할 점들

1) 학생들이 나서기보다 여성농민들이 주체로 서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손님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손님대접만 받으시면 황당하지 않으시겠어요?

여성농민반 선전을 위한 방송도 가능한 부녀회장님이나 여성농민에게 부탁하시고 미리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드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부터 어머니들과 함께 준비해 들어가며 그분들을 주체로 세워봅시다. 마을잔치 준비는 특히 그분들과 함께 음식도 하고 장기자랑 준비도 해나갑시다.

2)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불리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르치고 오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을 어려워해서 그렇지 말문이 트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실수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농민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힘이 여성농민과의 얘기를 잘 풀수 있게 합니다.

3) 겁먹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시다.

처음엔 얘기 한마디도 어떻게 할까 무척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아주 생활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 젊었을때에 곱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겠네요." "자녀들은 다 공부를 잘 하나요?", "무슨 농사를 주로 지으시나요?" "농사지으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실텐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등.

4)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끈기있게 임해야 합니다.

사실 여농반 모임은 될듯 말듯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기있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반드시 그 성과는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인내를 발휘합시다.

농촌활동의 꽃, 여성농민반! 잘 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민반 활동을 잘 할려면...

1. 준비기

1) 여성농민반 분반주체를 빨리 세워내자.

학교별 단대별 조별 주체설정이 잘 안되다보면 사전준비작업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여학 일꾼들을 중심으로 여성농민 분반원들을 모집하고 함께 어떠한 내용으로 분반활동을 할 것인지 내용을 잡아내고 꼼꼼한 준비를 진행시켜 나가자.

2) 사전답사는 농활의 첫시작, 꼭 해야된다.

답사를 통해서 마을분위기, 여성농민의 연령대, 관심분야를 파악해서 분반활동 일정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부분 답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기껏해야 팀장의 답사 때 조사서를 부탁하는 정도였다. 그러니 분반활동 계획이 그마을에 터무니없게 잡혀있거나 마을 여성농민의 요구가 높아도 준비부족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힘들어 할때가 많다. 직접 답사, 마을 여성농민분 중 영향력있는 분을 미리 만나보고 오자. (답사 조사서는 자로집 뒤에)

3) 구체적인 교양을 진행하여야 한다.

각 대학별로 여성농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양과 분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반원들까지 교양을 꼭 실시하자.

4) 목표와 계획을 세우자.

그냥 원래 있는거니까... 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벗어나 94년 농활에서 여성농민반의 최소한의 목표와 최대한의 목표를 세워보자. 작년의 여성농민반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수행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세워지고 나면 그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여성농민반 분반원들이 함께 모여 친목도 다지고 여성농민반 활동을 잘하겠다는 결의도 다지며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짜보자.

2. 본 활동에 들어가서

1) 일정표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가. 여성농민들을 분반활동에 모이시게 하기 위하여
 ●도착과 동시에 호별방문을 통해 인사를 하자. 이때에는 마을 어머니들 중에서 호의적인 분을 파악한다. 마을인사를 가기전 전체 반원이 무엇을 알아와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유하고 가야하며 여성농민 신문을 나눠드리며 여농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도 좋다.

●부녀회장님이나 마을의 영향력있는 여성농민을 파악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모임을 준비해 간다. 그분들과 여농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다. 마을의 연명층이니 분위기, 잘 모이시는 곳, 자주 만나시는 분들도 파악해 보자.

●마을방송(가급적 학생보다 부녀회장님께 부탁하여), 마을게시판등으로 여농반 모임의 시간, 장소를 알리자. 작업시에나 길에서 마주칠때마다 인사하면서 모임을 알린다.

있도록 하면 좋다. 호별방문시에는 그날 작업한 여성농민의 집을 찾아가서 분반활동에 참여하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침식사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분반원들끼리 그날 근로시간에 이야기할 주제를 논의해보고, 저녁식사후 분반활동 내용점검과 그날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자.

◆여성농민과의 긴밀한 결함을 위하여 개별작업(새참준비 등)도 같이하면 좋다.

☞활동방법☜

-작업시 농민과 가까이 있을때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하고 먼거리에 있을때는 노래(노가바, 민요)등을 부른다.

-겉떡지 말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자. 가족상황, 농사규모, 살아온 이야기등 아무 이야기나 좋을것이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하자.

나. 호별방문

분반활동시간과 작업시간, 기타 일정을 제외하고는 호별방문이 계속 되어야 하는 만큼 치밀하고 계획적인 호별방문이 중요하다.

☞유의할 점☜

◆보통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야기를 할때 아버님들과만 이야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목격의식적으로 여성농민들과 같이 이야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달하려는 내용을 준비못했거나 용기가 부족하면 저녁 시간 같은 경우 어머님들과 텔레비전만 보다가 오는 경우가 있다. 여성농민들이 대원들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많지 않다. 끈기있게 접근하고 말문을 트는 용기가 필요하다.

☞활동내용 및 방법☜

◆처음 이틀은 마을의 모든 집을 방문하여 인사하도록 한다.

◆이후는 활동계획을 수립, 진행한다. 조사활동, 선전활동을 준비한다.

다. 우천시 활동

비가 오는 날은 여성농민들이 마실다닐 시간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사전준비가 없거나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비가 오는 날은 신속하게 어머니들을 모이시게 하던가 한두분이라도 모이신 곳을 찾아가서

▶비디오를 같이 보거나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갖거나

▶시간의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함께 볼 비디오☜

함께 볼만한 비디오를 미리 알아보고 분반원들과 함께 본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의논해 보고 가지. 농활을 가기전 미리 비디오를 준비해 가거나 군농활본부에 부탁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잘못하면 피곤하신 어머니들이 계속 졸음을 참으며 계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농활에 볼만한 비디오

-----쌀수입개방저지에 관한 비디오

보육의 사각지대 농촌아이들

◆발로 뛰는 만큼 성과는 나타난다. 처음에는 많이 모이시기 어렵더라도 저녁시간에 집집마다 돌면서 나오시도록 알리자.

◆연령별로 모임을 가져가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모임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관심사도 틀리다. 연령별로 모임을 나누어 가지며 그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보자.

젊은 층의 경우 탁아나 교육의 문제, 농촌환경의 문제등을 얘기해보고 토론을 활성화해보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살아오신 얘기와 풍물강습, 농촌의 고령화등을 얘기해보자.

나.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때

◆작업때나 틈날때마다 부녀회 책임자들을 만나서 오늘의 모임내용을 의논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함께 준비, 역할을 맡길수 있으면 좋다. (사회, 공동진행)

◆모임은 이루어지나 특정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함께 노래부르고 이야기하며 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개사곡이나 풍물을 미리 준비해가자.

다. 전체모임이 어려운 경우

철저한 준비와 마을의 호응이 없으면 전체모임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전체모임은 1-2회로 잡고 나머지는 호별방문을 계획해보자. 물론 호별방문도 조사활동이나 선전, 홍보활동등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낮에 작업한 덕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어머니들의 모임이 어려운 경우, 아동반과 연계해서 여농반 모임을 꾸려보자. 어떤 마을이거나 아동반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농촌에서도 아주 높으므로 아동반에 나오는 어머니들 중심으로 여농반을 모을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여성농민 신문을 나누어 주고 어머니께 읽어드리게 하거나 숙제를 내어서 어머니의 도장이나 성함을 받아오게 하고 이후에 적절한 날과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과 어머니가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봅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어머니들의 모임을 계속 만들어 간다.

☞예☜ 학예 발표회-일하는 엄마 모습 그리기,

엄마가 아이 노는 얼굴 그리기,엄마에 대한 글짓기아이에 대한 엄마의 글짓기

엄마와 아이가 함께 종이 뜯어부쳐서 만들기

함께 그리기 등

마을잔치준비로 아동반과 여농반을 함께 모을수도 있다.

☞주의☜

아동반과 연계할 경우 미리 아동반 주체와 의논하고 공유해야 한다. 아동반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농반 분반원들이 주체적으로 고민하자.

2)일정표 이외의 활동

가. 근로활동시

농민들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데에 작업시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작업시에 쌓인 원망감과 신뢰는 농활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 또한 작업시 나누는 대화를 통해 마을 전체의 분위기나 의식성향을 파악하여 분반활동을 하는것도 중요하다. 특히 마을 여성농민들이 시간이 없어 모임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의할 점☜

◆여성농민반 대원들은 작업을 정할때 되도록 여성농민과 함께 할수 있도록 배치하여 이야기할수 있도록 만들고 여성농민반 분반장은 작업반장과 그날의 근로활동을 같이 결정할수

라. 마을교육을 실시해보자.

마을 여성농민의 분위기가 잘 모아질 경우 경북여농회와 연결하여 마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자. 94년 여름농활은 어느해보다 내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비준저지에 관한 내용과 여성농민대개혁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보다 같은 여성농민의 입으로 풀어내는 내용이 큰 영향력을 갖고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여성농민회 강화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다. 작년 농활에서도 마을교육을 실시한 마을들이 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자. 교육이 어려울 경우 농활활동이후 마을의 가장 가까운 여성농민에게 여농회를 소개해드리고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자.

마을교육을 실시할 경우 군농활본부로 연락을 하면 된다.

3. 평가를 꼭 꼭 하자.

평가를 제대로 해내고 이후 활동에 반영하면 이제까지의 활동의 반은 절반것이다.

▷매일의 분반활동에 대해 분반원들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자.

▷농활활동이 끝나면 분반활동 주체는 분반활동 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군단위 주체에게 전달, 지역의 여성농민조직이 취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팀단위 여성농민반의 활동평가는 문서화되고 책임감있게 차기주체와 여성농민조직활동가에게 전달되어 활용될 때 완결되는 것이다.

▷그 마을에서 여성농민활동가와 같이 분반활동을 준비했다면 떠나기 전에 공동평가를 꼭 해야한다.

☞평가 틀거리로 참고하세요☞

평가서 양식

1) 마을 이름

마을 주체

분반 주체

2) 어떤 형태로 분반 활동을 진행했는가?

(날짜별·시간대별·모임 형태 등)

3)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가?

(탁아문제·쌀문제·민요강습 등)

4) 농활 준비기의 문제점

5) 농활 수행기의 문제점

6) 더 보충하고 싶은 말이나 여성 농민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7) 여성 농민회와 연계할 수 있는 분

(성함·주소·전화 번호)

4. 후속 활동은 이렇게...

후속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간 농활의 성과가 더욱 커지느냐 아니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날아가느냐가 달려있다. 여성농민들이 우리에게 가졌던 신뢰를 꺾수는 없다.

1)여성농민주체와의 후속활동

△여성농민주체와는 공동평가를 해서 후속활동의 방향을 세운다.

△작성된 분반활동 일지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부락에서 파악된 적극적인 여성농민을 소개, 연결시켜 준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여성농민 초청강연등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보자.

△선전물을 농활기간내에만 양껏 만들려 하지 말고 농활이후 후속작업의 하나로 농활이 진행된후의 얘기들, 각 곳의 소식들, 이후 과제등을 담은 선전물을 발간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집중적인 선전물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수도 있을 것이다. 분반원들에게도 좋은 정리의 기회일수 있다.

2)마을 여성농민 대중과의 후속활동

☞철칙은 지킬수 있는 약속만 하자는 것이다.

◆마을 여성농민들에게 소감, 감사의 내용등으로 편지를 쓰자. 특히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들에게는 지속적인 안부인사나 기타 여러 신문등을 보내는 지속적인 연락을 하자.

◆같이 불렀던 노래나 민요테이프를 보내 드리자.

◆명절에 방문하여 인사를 드리거나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하는 것도 좋다.

◆가능한 곳에서는 아동반과 연계하여 어린이 캠프를 열어 어머니들과 함께 참가하도록 하자.

◆무엇보다 중요한 후속 활동은 가을 농활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다. 여성농민반원들이 주도적으로 가을농활을 준비해보자.

◆기타 활동한 마을에 적합한 후속활동을 전개한다.

3)여성농민 분반원들과 여성농민 주체에 대한 후속활동

△농활 보고대회에서 여성농민반 활동보고대회를 적극적으로 한다.

사진전시회나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한 글을 농활신문에 실는 것등.

△평가를 통한 서로의 소감을 추스려내고 이를 문서화하여 이후 여성농민반 활동이 단절이 아닌 계승이 될수 있도록 하자.

여성농민과 재미있게 함께 하는 프로그램

‘어떻게 재미있게 놀기만 할 것인가?’ 이것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보면서 여성농민의 삶에 무엇이 도움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제시할 몇가지 프로그램은 이미 다른 단위에서 모범적으로 진행해 큰 성과를 올린 것들입니다. 예시로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위의 사정에 맞게, 마을 사정에 맞게 융통성 있는 활동 바랍니다. 여농반의 활동이 그간 거의 없거나 미진했던 단위는 한가지 사업에 집중해서 모임의 전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수지침, 뜸, 몸풀기 등 건강 강좌

실 뜸이 없는 여성농민의 경우 관절염 등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종일 농사일, 집안일을 하면서 운동은 커녕 몸 풀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수지침을 배워 기본적인 응급처치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침이 어렵다면 누구나 쉽게 뜸 수 있는 뜸도 좋다. 또한, 보통 짝은 지어서 하는 몸풀기도 몸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기 쉽다. 자료집에 ‘다살이살판’에서 준비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이미 많은 마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비디오 보기

대부분 가정에 비디오가 있고, 농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좋은 내용의 테이프를 준비해 함께 보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 주로 농촌의 현실을 다룬 것이나, 농민분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면 더욱 좋다. 서부지구 여성농민 관련분반 교양학교에서 보았던 ‘보육의 사각지대 농촌아이들’을 보면서 여성농민 대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의 테이프는 복사를 할 수 있다. 27일까지 복사를 운하는 단위는 총학생회에 신청을 하시길... 복사비는 3,000원.

3)노래자랑

민요나 개사곡을 가르쳐 드린다. 그리고 조직적인 선전을 통해 노래자랑이 있음을 알린다. 마을 분들이 모이면 참가자 신청을 받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을 하게한다. 먼저 이전에 배운 민요나 개사곡을 다함께 부르고 노래 자랑에 들어간다. 청장년반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수줍어 하시고 잘 안하시려고 할 수도 있으니 마을 상황을 잘 파악한 후 진행한다. 공대 식공과에서는 작년에 노래자랑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상품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말고 상품은 너무 비싸지 않은 간단한 것으로 한다. 일등 및 수상자는 마을 잔치때 소개를 하고 노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4)풍물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풍물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이 상당 수 있다. 이 경우는 날자를 정해 마을 회관이나 공터에 모여 기본적인 장단을 배우고 그에 맞는 민요를 배운다. 풍물을 지도할 수 없는 단위는 각 단위에 있는 풍물패에게 미리 연락하여 날자를 잡는다.

5)팔씨름대회

일을 잘하고 힘이 센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팔씨름뿐만이 아니라 돼지씨름, 인디언씨름, 손가락씨름, 눈씨름 등 다양하게 진행한다. 이것은 미인뽑기 대회와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미인뽑기 대회>

1. 먼저 TV 탈렌트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이야기 해보세요. 오늘 우리 엄마들 중에서 미인을 뽑기로 합시다.

2. (이름이 나온 탈렌트를 나열하고)이중 일을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3. 탈렌트와 아주머니 중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필요한 사람 일까요?

4. 여성농민 미인 뽑기의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힘이 제일 센 사람

-영덩이가 평평집한 사람

-손마디가 제일 굵고 못이 많이 박힌 사람

5. 심사위원을 뽑는다.

6. 대표가 서너명 뽑히면 최종적으로 힘겨루기를 한다.

7. 미인이 뽑히면 ‘여성농민 양파, 여성농민 감자’ 등의 창의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간단한 상품을 준다.

6)자모 모임

아동반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아동반에서 진행한 편지나 그림 등을 발표하면서 함께 진행한다. 아동반에 자주 오는 아이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교육문제 등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많은 단위에서 모범적으로 진행시켜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체가 부지런히 움직여 알아보고, 마을의 상황에 맞게 진행시키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함께하는 노래 ♪

여성농민 단결가(마음약해서)

1.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건 맨날 호미질이야
(아이구 허리아파)
열쇠도 없는 딸딸이 차에
이 몸 싣고 밭으로 가네
(아이구 허리 아파)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었던가
애들 키우고 빨래하고 땅도 파야지
여성농민은 기계랍니다
농촌에 사는 여성농민도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2. 콩을 심을까, 마늘 심을까
방황하는 이 마을
선진국처럼 보장 농산물
정해주지 않는 이 나라

생각하면 그 얼마나 억울했던가
유알협상 이유부처 농산물 개방
남편들이랑 힘을 합해서
쌀값 보장 전량수매
수입쌀을 막아냅시다.

알미운 미국

수입만 강요하면 만사평이나 알미운 미국
수입개방 때문에 애꿎은 농민가슴 아픔만 주는 미국
농발종 만들어서 농민 내쫓는 알미운 민자
미국때문인가 재벌 때문인가 고통만 주는 민자
병주고 약주고 겹도 주지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끝까지 해볼테면 맘껏해봐라 아아 우리는 이긴다.

오동동 덕령

호남벌에 보리농사 오동동이나
충청도에 고추농사 오동동이나
아니요 아니요 쌀값이 오르면 농산물 수입
오동동 오동동 굶임이 없어
촌놈가슴 타는 간장 오동동이나

추야절에 농사잘돼 깨갱맥이나
농사가 파농이라 깨갱맥이나
아니요 아니요 수입쌀 싣고 오는 화물선 소리
깨갱맥 깨갱맥 그침이 없어
농산물 값 똥금이니 깨갱맥이나

쌀개방 석상가 (소양강 처녀)

쌀개방 강요하는 미국놈 싫어
농정에 무식한 땡삼이는 정말 싫어
(싫어×5)
열여덟 새색시로 시집온 농촌
농사일 십수년에 짙순이가 됐다야
아아- 숙터져서 못살겠다야
쌀개방 작살내자!

알미운 미국

유방암 자가진단법

우리나라 여성에게서 자주 볼수 있고 가장 위험적인 병이 자궁암과 유방암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방암은 매월 정기적인 자가진단으로 쉽게 발견하여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그 방법을 익혀 두자.

유방암은 주로 체격이 크고 뚱뚱한 사람, 육식(지방식)을 좋아하는 사람, 나이가 많을수록 (4-50대), 가족중에 유방암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이 경우는 5-9배 정도 확률이 높다.)에 많이 걸린다고 한다. 유방암은 병이 생긴지 5년 정도 지나야 만져지거나 자가확인이 되므로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방법 ▶

1) 한달에 한번 같은 날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진단한다.
생리후 3-4일째 되는 날이 가장 좋은데 이때가 유방이 가장 부드러울 때 문이다. 생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날짜를 정해서 규칙적으로 진단한다.

2) 목욕을 하면서 비누를 바르거나, 평상시 분을 바르고 아래와 같이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 ① 젖꼭지가 들어갔는지
 - ② 유방에 몽오리가 생겼는지
 - ③ 젖꼭지 피부가 벗겨졌는지
 - ④ 팔을 들었을때 속 들어간 부위가 있는지
 - ⑤ 겨드랑이에 덩어리가 있는지
- 를 살펴본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유방의 바깥쪽이라고 한다. 특별히 겨드랑이에 몽오리같은 덩어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유방이 큰 사람은 옆으로 베개를 고이고 누워서 진단해 본다. 만일경우 몽오리가 단단하고 몽오리 경계부분이 불투명하며 여러부위가 아니라 몽오리 하나가 만져진다고 한다.

담배와 술(하루에 포도주 3잔 이상)은 유방암에 좋지 않고 우유, 보리밥, 등푸른 생선(꽁치, 고등어 등), 굴, 야채등이 유방암예방에 좋다고 한다. 초경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방암 예방에 좋다고 한다.

알고 갑시다

탁아의 현실과 문제점

농촌 탁아소 연합의 창립 준비위원회

1. 여성농민의 노동과 육아

농축산물의 본격적인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참여는 늘어만 가고 상대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옛날에는 농가 여성들도 가사노동만 담당했으나 차츰 농업생산노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해도 여성들은 밭농사와 김매기, 논농사와 모심기, 김내기의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생산노동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판매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여성농민의 노동시간을 보면 새벽4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가족의 식사와 가족의 사료 주기 등을 하고, 8시에 논밭으로 나가면 저녁 6-7시경에 들어와서 저녁식사 준비와 세탁, 청소, 자녀와 어른들의 시중을 들고나면 밤 10시 또는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게 된다.

UR협상과 더불어 농업의 해체, 농가 경제 파탄의 위기를 보면서도 조상대대로 살아온 농촌과 농업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젊은 농사꾼에게 가슴아픈 일은 농촌에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시설과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탁아소도 유치원도 없는 농촌에서는 부모가 일을 나갈때 아이들을 빈집에 남겨두거나 아니면 논밭에 데리고 나가게 된다. 아이들이 혼자 또는 저희들끼리 노는 동안에 여러가지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농수로에 빠지거나, 경운기에서 놀다가 다치거나, 화재위험, 농약사고, 교통사고등으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를 많이 본다.

2. 농촌탁아사업의 현황

1) 정부의 농촌탁아사업

70년대 정부는 농촌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농번기 계절 탁아소를 권장했다. 그 때는 마을마다 회관도 없었을 때이다. 마을 앞 넓은 마당이나 큰 나무그늘 밑에서 동네 처녀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놀아주던 것이 농촌 탁아사업의 시작이었다.

이 농번기 계절탁아소는 봄에 모내기철 한달과 가을 추수철 한달로 1년에 두 달 동안 운영되며 정부에서 교사의 수고비로 월10만원과 약간의 장난감을 지원했다.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1986년 통계에서는 전국에 2862개소가 되었다.

1990년에는 정부에서 1개 면에 한개의 농번기 탁아소를 지원하기로 하여 통계상 1266개소가 되나 실제로 운영되었던 탁아소는 그보다 적은 수였다. (부안군 통계: 1986년 25개소, 1990년 13개소, 1991년 4개소, 1992년 없음) 이것마저 1992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지했다.

1990년에 전국 농촌 탁아대책위원회에서 전국 농번기 탁아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지원의 농촌상설, 종일반 탁아소가 없었으나 그 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부칙 제2조)에 따라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소를 전환한 극히 소수의 농촌상설탁아소가 면단위에 생기게 되었다.

2) 민간농촌탁아운동

1980년대 초부터 여성농민활동가 또는 농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에 의해 상설탁아소들이 부락사람들과 힘을 모아 생겨나게 되었다.

1987-8년에는 농촌탁아소에 대한 여성농민활동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상설탁아소가 어려우면 농번기 계절탁아소라도 적극적으로 자기 마을에 설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전북-남원, 경기-남양주, 강원-홍성동. 1989년에 들어와서 농촌지역의 민간탁아운동은 한편으로는 농번기탁아소를 시작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전북-고창, 강원-영월, 경기-남양주, 등에 새로 생겼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탁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농촌탁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1990년에 농번기탁아소를 준비한 지역은 경북-의성, 전북-임실, 정읍 등이었으나 위지역에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3. 농촌민간탁아소사업의 문제점

농촌에서 탁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를 만드는 것과 탁아소 건물 및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일이다. 농촌경제상 부교가 보육비를 전액 부담할 형편이 못되므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미한 지원으로는 농촌에 탁아소를 설치하고 운영할수가 없다.

1) 정부의 지원

정부는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을 맡아서 보호하고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명칭을 바꾸어 1990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보육대상아동은 1994년 현재 1,011,000명이고 필요한 보육시설이 24,085개소인데 비해 정부의 지원시설은 1,606개소(6.6%)일 뿐이다. 이들도 대부분 읍단위 이상의 도시에 편재되어 있어 농촌에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94년도에 신축예정인 75개소가 거의 대도시에 배정되어 있으며 시설별 지원을 하고 있는 기존시설들도 거의 읍단위 이상에 있으므로 농촌민간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은 아동별 지원 뿐이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농촌에는 부동산(농토)이 소득수단인데 20년 할부상환으로 구입한 농토라도 즉시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한 부채액이 얼마이든 높은 세금이 책정되어 있어, 80만원 미만 소득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우며 생보자는 거의 없다.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 해도 15명 이하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비 150,920원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118,330원을, 16명 이상의 보육시설에서는 77,080원의 보육비를 부모에게서 받을 수 없기에 농촌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재정상 큰 어려움이 있다.

2) 신고와 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도 신고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만 받게 되었는데 농촌에서는 신고와 인가신청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나

인가를 받지 못한다.

①신고

15명 이하의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할때 군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규정과 종사자규정이다.

시설규정은 아동1명당 1.2평의 건물 시설이 있어야 하고 종사자규정은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3세 이상만 보육할때는 1명, 3세 미만의 영유아가 한두명이라도 있으면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촌에서 그만큼 건물을 찾기가 쉽지도 않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를 구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도시의 보육교사들을 초빙하려해도 보수를 제대로 지불할 재정능력도 없다.

②인가

16명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 신청을 하려면 18평 이상의 건물이 있어야 하며 건물을 보육시설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하고 2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가 있어야 하는 등 가정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3)보육아동 확보 문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적정규모의 영유아가 있어야 하는데 농촌에는 농가가 산재해 있어 한마을 안에 있는 영유아의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3-4개 마을의 아동을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4.맺음말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농촌 탁아소에 대하여 어린 자녀를 둔 여성농민 외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1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및 근로자 주택단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과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조항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도 감독, 독려하는 기관이 없다. 보사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지침서에서도 농촌보육사업을 위한 관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농촌탁아소연합준비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와 뜻있는 여성농민들의 힘든 싸움을 통해 농촌에 탁아소가 하나 둘 건설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 전체가 농촌탁아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경북 성주군 대가 어린이집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쌀 및 기초농산물이 수입개방의 위기에 놓여있고 여성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중 반가운 소식이 성주군 대가면 어린이집 개원 소식이다.

탁아소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지만 현실적인 설치에 있어서는 재정의 어려움, 지역적인 거리의 문제, 안정적인 교사확보, 군의 인가와 지원등의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들로 성주군 대가면에 어린이집이 93년 9월 문을 열게 되었다. 농촌탁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지역주민들이 모여 대가 탁아소설립추진위를 마련하고 홍보지를 만들고, 후원회원 모집, 재정마련을 위한 알뜰장터, 일일주점, 장소마련, 교사마련, 차량문제해소등 1년 반동안의 준비를 해온 결과 뜻깊은 개원을 이룬것이다. 장소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마을회관을 사용하고있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운영은 이사장, 원장, 자모회장, 부녀회장, 교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운영비는 월4만원씩의 분담금과 후원회비,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일년에 두번 봄, 가을로 일일차집과 주점들을 기획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미역, 찹쌀, 양말등을 판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가를 내고 군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며 이는 단지 재정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민간탁아소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신뢰감 결여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농촌을 자주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만들며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촌을 떠나라고 떠밀어 대지만 농민들은 이땅을 더욱 사람이 살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탁아소 설치, 농촌탁아소확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재 농촌 탁아소가 안고있는 안정적인 교사확보와 운영비 마련등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촌은 더욱 고령화, 여성화 될 것이고 월 아이들은 갖가지 사고의 위험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은 숫자의 아이들이지만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시도한 대가어린이집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속에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TV, VTR, 냉장고, 그림책, 장난감, 교구 등 후원품을 보내주세요. (쓰던 것도 환영합니다.)

☎1구좌 5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아이들과 교육놀이 등 이분들 선생님을 도와 지원봉사

■ 이실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세요 ☎ 0544-932-4875 ☎

알고 갑시다

가정폭력,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1. 우리친구 애타리가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월 부산 인제대학교 92학번 생물학과 애타리학우가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되었다. 애타리학우는 현재 9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 사건의 전후를 잠깐 살펴보자.

아버지 양용학씨는 부인 장순희씨를 20년이 넘게 폭력으로 병들게 했다. 맞아서 이가 부러지고 팔에는 남편이 휘둘러 칼때문에 10여cm나 흉터가 남아있다. 목이 졸려 실신을 당하기도 하고 반복된 구타로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기도 했다. 양씨의 폭력은 아들 건우군과 애타리양에게 예외일 수 없었다.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얼굴을 구두발로 차고 팔다리에 금이 가게 구타를 했다. 그날도 양씨는 술에 만취한 채 애타리를 이유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엌에서의 실경이 끝어 양씨는 칼에 찔려 비극을 맞이했다.

애타리는 경찰에서의 1, 2차 진술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두번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후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검탈하려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평소에도 딸에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던 양씨는 그날 애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칼을 찾으려 주위를 두리번 거렸다. 애타리는 주방으로 가서 먼저 칼을 쥐고 검탈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던중 양씨는 애타리의 손에 쥐어져있는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해를 하였다.

자살의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다. 양씨의 배에는 3cm와 12cm길이의 칼자국이 나있는데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상처이다. 또한 자살할 때 흔히 나타나는 주저흔의 상처가 보이는 것도 큰 증거가 된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사에서 보면 검찰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진행이 되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성폭행할 수 있는가? 검탈하려던 사람이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등의 입장을 일관했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6월 15일 부산 해운대 동부지청에서 열렸다. 채 10분이 걸리지 않은 이공판에서 애타리 학우는 9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사의 판결요지는 이러했다.

"판결에 불복할 시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사건발생 직후 '누가 찔렀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내가 찔렀다'고 애타리 학우가 대답했다. (술로몬 왕의 재판을 예로 들어가며) 급박한 순간에서 제일 처음한 진술이 진실로 추측된다. 살해의 동기가 미흡하나 자살의 동기는 더욱 미흡하다. 존속 살해는 최고의 형이나 무기형이므로 이후에 주위의 동조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버지 양용학(50)씨의 평소 행동이 불성실하고 지탄받아 마땅하며 그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던 점과 아버지의 언행중에 '찌를테면 찔러봐라'는 등

자극적인 말이 있었음을 참작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한다."

위에서 볼수 있듯이 애타리가 아버지를 찔렀다는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으며 판결 내용에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첫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나 애타리가 칼을 쥐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만큼 충분히 '내가 찔렀다'고 말할수 있으며 이후 구체적으로 사건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애타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애타리 학우와의 첫대면에서 '엄마, 아빠가 내손을 당겼어'라고 했으나 상황을 자세히 모르던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자살동기라는 부분에서도 '아버지 내가 여자로 보여요?'라는 말을 애타리가 수차례 해야 했던데 대한 죄책감 내지는 '이렇게 살 바야작 죽는게 낫겠어요' '그래 못죽을 줄 아느냐' 등의 대화가 오고갔던 상황에서의 상태로 보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전에도 얘기되었듯이 애타리가 아버지의 힘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판이 끝난 후 애타리의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나오셨고 모인 학우들에게 '애타리는 바로 나로 인한 희생자이다. 이럴걸 왜 낳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애타리가 반드시 무죄석방되어야 함을 얘기하며 '제일 믿는 것은 학생들뿐이다. 도와달라'고 당부하였다.

3차심리공판에서 '검탈'에 관련된 애타리학우의 진술에 대해 판사는 '세상에 딸을 검탈하려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있나'는 말을 하는등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정의 물이해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그간 전국에서 온 탄원서를 선별하여 2천 여백부를 제출하였었고 재판정에서도 이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한다. 이제 그동안 미흡했던 가정폭력과 우리가 이뤄내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해가며 애타리학우의 무죄석방과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2.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대안

십수년동안 상습적으로 자신을 때린 남편의 칼을 피하다 남편을 찔러죽인 사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아버지를 야구방망이와 칼로 살해한 세 남매 사건.

그리고 애타리 사건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간의 범죄, 특히 가정폭력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화 과정의 일차적 담당자인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존속범죄나 가정붕괴와 연결되거나, 나아가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폭력으로 확산될 개연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내에서는 아내구타,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가정내에서 당사자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기대와 사생활권 존중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성격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여러유형의 가정폭력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그럼 먼저, 가정폭력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가정폭력의 개념은 대인간 폭력의 한 범주를 일컫는 것이다. 즉, 폭력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폭력을 말한다.

현재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간에 발생한 폭력이 가정폭력의 범주로서 연구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는 달리 사회의 가부장제 성격이 중요한 발생요인인 점, 다른 폭력에 비해 사회에서 용인되는 폭력인 점등이 가정폭력의 특수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자기의 가산에 불을 지르면 산림법에 걸리지만 자기아내를 때릴때는 '내 여자, 내가 때리는데..'라는 말로 모든 것을 무마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1992년 서울시의 20세이상 기혼남녀 (남자 560명, 여자640명)를 선정,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동안 가정내에서 부모, 형제로부터 평균 13.3회(전체의 71.9%)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폭력경험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응답자들이 여성응답자들보다 부모, 형제들로부터 평균 5.4회, 가정 밖의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평균 11.3%정도 더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45.8%는 결혼 후 '한두대 맞는 이상'의 어떠한 폭력이라도 남편으로부터 당한 적이 있으며 14.4%는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폭력은 강제적 성관계를 동반할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높은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구타후 당하는 남편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여성의 의사와 인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내강간'의 범주로 넣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 폭력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54.6%를 차지한다.

간단하게 가정폭력의 개념, 폭력의 형태, 구타후 아내강간, 여성의 대응방식 등을 알아보았다. 많은 조사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내를 때리는 남성들의 26.8%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그리고 아내폭력은 아동학대와 같은 다른 가정폭력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의 양에리 학우의 사건을 보더라도 아버지 양용학 씨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해온 사람이었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애리와 남동생도 늘 구타해온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이렇게 볼때 가정폭력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이러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함께 이러한 규범들에 기여하는 제반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가정내 문제로 은폐시키는 경향 및 이를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경향들을 개선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발생을 미리 막는 일차적 예방으로써,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 1)메스컴등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 2)가정내 폭력을 처벌이나 훈육의 의미로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며
- 3)가정폭력의 심각성 등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 4)이와같은 홍보를 위한 여성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며
- 5)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 6)관계기관이나 사람, 즉 병원이나 상담소, 검.경찰이나 변호사, 판사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제적으로 마련하여 가정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권의 존중 이것이야말로 가정폭력, 사회적 폭력을 막는 최선의 길이며 우리사회에서 더이상 제2, 제3의 에리가 생겨나서는 안될 것이다.

알기쉬운 하기 쉬운 민간요법

주부습진

오배자 한줌

오배자에 물을 충분히 부어 20분정도 끓인 후 식혀서 발라준다. 물기가 마르면 반복한다. 무좀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며 4일 정도면 낫는다고 한다.

꺾을 나오지 않도록 할때

엿기름

엿기름을 채에 얹어 따뜻한 물로 걸러낸다.

이 물을 수시로 마시면 된다.

보통 이를 후면 효과가 나타난다.

생리통

뽕나무 뿌리, 가물치

뽕나무 뿌리 한줌에 물 세컵을 붓고 잘 우려나오도록 끓인 후 뽕나무 뿌리는 건져 내고, 그 물에 가물치를 넣어 함께 고아 먹는다.

3일정도

발목을 삐었을 때

계란 2알, 밀가루 2스푼

계란 노른자를 풀어 밀가루와 섞은 다음 가제에 묻혀 발목에 고정시켜 둔다.

3일후면 효과가 있다.

습관성 변비

무우청 세 포기, 생고구마 1개

무우청과 고구마를 적당히 잘라 먹기 직전에 갈아 마신다.

아이들은 반컵, 어른은 한컵

1주일 정도, 심한 경우는 한달 복용

임신 중 감기

배, 꿀, 흑설탕

배의 꼭지를 따고 속을 파낸 후 꿀과 흑설탕을 넣고, 찜통에 넣어 찌후 그대로 짜서 즙을 내서 먹거나 통째로 먹어도 된다.

한개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난다.

가래가 끓을 때

도라지 한 줌

도라지에 물 한 대접을 붓고 물이 반으로 줄때까지 증발에 달여 반컵씩 하루 세번 마신다.

1주일 정도 후면 효과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얘기 하나

주부는 얼마짜리 노동자인가?

우리 옛말에 '어머니 하루 살림살이가 도량 80리'라는 말이 있다. 하면 안 보이고 안하면 보이는 일이 바로 집안의 어머니의 일이다.

주부의 가사노동의 범주는 인간생산, 육아, 노동력 재생산, 가사 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딸린 역할이 출산자, 요리사, 교사, 청소부, 간호원, 비서등 16개 종목이나 된다. 이처럼 자질구레하고 이갈지도 않은 주부의 노동이 쌓이고 쌓여 인간은 후식을 누리고 사회적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전국의 모든 집에서 주부들이 밥짓기를 거부하고, 빨래와 청소를 안하고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남성들과 아이들은 음식점, 탁아소, 여관등을 전전하며 사회는 온통 가사일로 당분간은 기능이 마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가사노동의 담당자인 주부들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저요, 그냥 집에서 놀아요'

'술뚜경 운전사예요'

'내가 뭘 아나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해선 여성계와 학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오*였는데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서너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전문가 대체비용법에 따르면, 주부가 가정관리와 가사에 할애한 시간을 노동부가 정한 시장임금으로 환산해 가격을 매길 때, 약 7-80만원 되는 상당한 노동자!

주부는 더 이상 놀고 먹는 술뚜경 운전사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사회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우리 여성농민들은 가사일 외에 농사일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들의 월 평균은 얼마나 될까?

'94 여름 농활 유아반 교양

1. 놀이방 운영의 실제

(1) 놀이방 일과운영 계획 예

시간	일과활동
㉠ 08:40 ~ 09:00	아이들을받습니다.
㉡ 09:00 ~ 09:30	이야기나누기,일과계획하기
㉢ 09:30 ~ 10:30	교사주도활동[1]
㉣ 10:30 ~ 10:50	정리,정돈,평가
㉤ 10:50 ~ 12:00	야외놀이,식사준비
㉥ 12:00 ~ 12:30	손씻기,정리,정돈
㉦ 12:30 ~ 13:30	점심식사
㉧ 13:30 ~ 14:00	주제가지고이야기하기
㉨ 14:00 ~ 14:30	정리,정돈,낮잠준비
㉩ 14:30 ~ 16:00	낮잠
㉪ 16:00 ~ 16:30	자유놀이,간식준비
㉫ 16:30 ~ 17:00	간식
㉬ 17:00 ~	교사주도활동[2]

㉠ 시작 시간은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집이 가까운 아이들은 직접 오거나,부모님이 데려 오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데리러 갑니다. 이때,부모님들과 꼭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오늘 할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 해주며 서로 친해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 간단한 미술(그림 그리기,만들기)활동 등의 가급적이면 전시가 가능한 것이 좋겠지요. 종이 접기등의 만들기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직접 만들도록 하고,너무 어린 아이들은 교사가 도와주도록 합니다. 그림 그리기는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파스,물감등의 재료를 나누어 주어 교사의 지도 아래 질서 있게 합니다.

㉣ 자기가 사용한것은 직접 치우도록 유도해 주시고,공동으로 사용한 물품은 다 함께 치우도록 합니다. 또,완성된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고,아이들의 생각들을 이야기 하게 합니다. 이때 완성된 작품들은 가급적이면 전시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 볼수 있게 해 줍니다.

㉤ 야외로 이동시에는 가급적이면 다함께 손을 잡고 이동 하고,교사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 하며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합니다. 이때 12명 정도 남아서 점심 식사를 준비 합니다.

㉥ 손을 씻길때에는 질서 유지에 주의 하고,아이들이 직접 씻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씻기가 끝나면 식사할 장소에 앉아 있도록 합니다.

㉦ 점심 식사시에는 교사들과 함께 먹도록 합니다. 역시 아이들이 직접 먹는것이 원칙이며,아이들의 자리가 모두 정돈된 후에 식사를 가져 오도록 합니다. 식사 전에는 식사노래나 감사의 기도등을 하도록 하고,식사 후에는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며,빈 식기는 직접 설것이 통에 넣도록 합니다. 식사 후에는 간단히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 1명이 설것이를 하는 동안 다른 교사들은 주제 이야기나 동화 등을 이야기 해 줍니다. 동화를 이야기 해 줄 경우 관련 그림을 준비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 하도록 합니다.

㉔ 낮잠잘 방을 깨끗이 치우고 간단한 이부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은 세면과 이빨을 닦도록 합니다. 또, 불편한 겜옷은 벗어서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㉕ 낮잠을 잘 장소는 통풍이 잘 되고, 너무 밝지 않은 곳으로 하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재웁니다. 이때 낮잠을 계속 안자려 하는 아이는 밖으로 나가 조용히 교사와 지냅니다.

㉖ 먼저 일어나는 아이들은 조용히 놀도록 주의 하고, 낮잠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을 일제히 깨우도록 합니다. 이때, 1명의 교사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합니다.

㉗ 간식 먹기전에 질서 유지에 주의 하고, 감사의 말을 하도록 합니다. 이때, 교사들도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먹습니다.

㉘ 이때는 음울활동이나 게임등을 하도록 합니다. 음울활동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게임을 할 때는 질서 유지에 주의 합니다. 아이들의 귀가는 아이들을 받을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이때 부모님들과 그날 하루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2) 기타

-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에 주의하고,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아이는 벌을 주도록 합니다. 이때, 벌받는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잘 이야기 하고, 친구들과 싸웠을 때는 잘못된 아이가 사과하게 합니다. 또한, 모범적인 행동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반말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아이들의 문제 행동

(1) 폭력적인 아이

어린이가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는 세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가정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가 불화하거나 가정내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거칠면 어린이들이 잔인하고 난폭한 행동을 한다.

둘째, 욕구불만이 쌓이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셋째, 자신의 열등감을 자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다른 유아들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좌절감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교사들이 점점 사랑을 베풀기 힘들어 진다. 이런 종류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에게 그와같은 상황을 이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아가 성장하면서 반항 경향은 점점 사라짐으로 웬만한 일은 못본척 해 두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줄 때는 그 즉시 주의를 주거나 따끔한 야단을 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욕구좌절의 경험을 주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유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힐책이나 다른 유아들과의 비교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다. 당분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유아를 감싸주고 친근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우는 아이

이런 아동의 행동 특징으로는 끝잘 울어 무슨말을 좀 크게해도 눈치보며 그냥 울어대고 친구들이 좀 건드려도 꼭 운다.

본시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모나 교사에게 무엇을 원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때 어린이들은 끝잘 우는 행동에 의해서 부모의 도움을 청하게 된다. 말하자면 어린이의 원망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3,4세된 어린이에게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말로써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우는 경향은 줄어들게 된다.

잘 우는 어린이의 행동은 습관화 되어있기 보다는 의지가 박약한 경우일때가 많다. 의지가 박약한 어린이 혹은 정신이 허약한 어린이의 경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백이 없이 다른 어린이에게 뒤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자신감이 없고 메시에 의욕이 없는 상태가 되는 원인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의 태도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명령만을 강요하거나 시키려고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기 쉽다. 반대로 어머니가 어린이를 너무 감싸주기만 해서 과잉보호가 되어도 의존적이 되어 의지가 약한 어린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점을 생각해서 우선 조그마한 일부터라도 혼자힘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는 어린이의 경우 먼저 어린이가 눈물을 흘리는 일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운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설사 어린이가 자주 울더라도 못본척 하고 무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의지를 키워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어린이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어떤일을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일에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의지를 키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3)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아이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이의 경우, 경우는 함께 놀고 싶으나 배척당하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는 친구들 근처에 접근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놀고 싶어하거나, 혼자 있으면서 남이 노는것을 방관하는 어린이이다.

지도로는 다른 아동들과 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체놀이나 집단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준다. 즉, 곤충관찰이나 단체미술등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배려해준다. 그리고, 고립된 상황때문에 심한 화를 내거나 폭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활동성및 정신적 해방감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운동기능을 높여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4) 고자질 하는 아이

행동특징으로는 이상한 행동이나 실패를 즉각적으로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부류의 아동인데 따라서 친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자질을 잘 하는 어린이가 지니는 원인은 대개 두가지이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울고 그른것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단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로 해서 잔소리나 금지를 많이 받는 아동은 자연히 친구들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금지받는 일을 다른 아동들이 자유로이 행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교사에게 고자질을 함으로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둘째, 교사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으나 다른 행동으로 그것이 용이하지 않았을때에는 아동은 친구들이 잘못된 점을 교사에게 알림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고자질을 많이 하는 아동을 지도할 때 교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그 아동을 편리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 아동의 말에 동조하는 행위를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자질을 하는 행위가 강화되지 않도록 다른 아이의 나쁜점을 들었을때 담담한 반응으로 대처해야 하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냉담한 태도는 아동에게 상처를 주게 되므로 아동이 고자질을 하는 심리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이 "OO가 더러운 휴장난을 하고 있어요."라고 고자질을 할 경우에 교사는 "OO는 휴장난이 재미있는가 보구나. 너도 진흙을 가지고 놀고 싶지? 진흙을 가지면 손이 더러워 질텐데 눈 뒤에 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 질까?"라고 말하는 동안에 고자질 하는 어

린이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인정을 받고 친구와 함께 놀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한 결과를 얻게 된다.

(5) 편식하는 아이

놀이방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고, 가장 교사들을 짜증나게 하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중의 하나가 편식하는 행동일 것이다. 편식하는 아이들에게 가끔 억지로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아이들에게 음식에 대한 공포를 줄 수 있다. 그보다는 설득하여 먹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편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불안할때, 처음 맛을 본 음식일 경우나 병적인 경우, 부모의 편식습관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편식 습관을 고쳐 주기 위해서는 포근한 식탁 분위기를 조성, 어른이 먼저 숟선수범하며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를 준다든지, 강제적인 방법이나 잔소리를 삼가하고 기분 좋게 권유하고 잘 먹었을 경우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질개선 및 신체적인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체질개선을 통한 편식의 습관을 고칠 수 있다.

(6) 손안에서 놀려고 하는 아이

친구집단보다는 교사와 놀기를 원하는 행동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지니는 원인으로 는 대개 세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친구와의 놀이에서 좌절을 많이 경험한 어린이일 경우 교사에게 집착 하게 되며 둘째, 가족구성원중 놀이대상이 성인들 뿐이어서 성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또래 집단과 노는 것 보다 익숙한 어린이일 경우 위와 같은 행동 특징을 나타낸다. 대체로 와동아들이거나 무남독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세째, 성인의 보호와 애정을 많이 요구하는 어린이인 경우등 이다. 지도방법으로는 첫째, 친구와의 놀이에서 좌절을 많이 경험해서 교사와 놀기를 원하는 어린이로 판단되면 그 아동이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나 작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둘째, 성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친구와 노는 것보다 익숙한 어린이는 재미있는 게임이나 작업을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배려해 준다. 세째, 보호나 애정을 많이 요구하는 아동일 경우 일단 개별적이고 따뜻한 관심을 항상 보여주면서 교사와 함께 있지 않고 친구들과 놀고 있어도 교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7)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

행동특징으로는 탁아소에서 교사에게 특별히 칭찬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프지도 않은 엄마가 아프시다든 영동한 이야기를 잘한다.

어린이는 바른 말이 잘 이해되고 통한다면 굳이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바른말을 했다가 혼이난 사례가 있을때에는 또 혼날까봐 거짓말을 꾸미게 된다. 예를들면 "너 그돈 무엇에 썼니?"하고 추궁당할때 "뭐 사먹었어요"했다가 "집에 고급과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길거리에서 시원치 않은것을 사 먹었느냐"고 혼난 경험이 있다면 어린이는 머뭇거리다가 "돈 잃어버렸어요"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남들이 사먹는 것을 보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가 없는 법 이다. 숙제를 안하고 뛰어 놀기만 하다가 막상 추궁을 당하면 "했어요", "언제 했어? 할 새가 없었는데"하면 줄리기는 하고 하기는 싫고 "학교에서 하고 왔어요?"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것이 들통이 나면 다음에는 "숙제 없어요"할 수도 있다.

엄마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지도 모른다. 간식을 차려주면서 "이것 먹고나서

숙제부터 하고 놀자"하고 종용했다라면 이런일은 안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칭찬이 받고 싶어서 안한일도 했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하는 수가 있다. "엄마 내가 놀이방에서 화초에 물을 주었더니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하는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가 그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을때 생이 났는지도 모른다. 이런일이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났으면 교사와 연락하여 이 어린이에게도 심부름등을 시켜서 인정 받는 기쁨을 맛보도록 해주십사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정에서도 어린이가 형이나 누나를 따를 수 없어서 소외 되지 않았나 돌이켜 보고, 어린이가 평량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8) 남을 괴롭히는 아이

친구를 괴롭히는 어린이의 행동특징으로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곤충을 잡아 친구의 옷속에 집어 넣거나 친구의 새 옷을 일부러 더럽히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친구를 괴롭히는 아동은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릇된 우월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 사랑받지 못한 좌절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 비롯될 수 있다. 친구를 괴롭히고 나쁜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의 본심은 사랑과 주목을 받으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좋은 방법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꼭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를 곤충이나 개구리를 잡아 옷속에 집어 넣으면서 괴롭히는 경우에 교사는 "무서워서 아무도 잡지 못하는 벌레를 쉽게 잡다니 굉장히 용감하구나!"라고 표현하면서 그 아동의 나쁜 행동의 강화를 피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보일 수가 있다. 더불어 놀이방에서 동물을 돌보는 일을 그 아동에게 맡겨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위와같은 과정을 통해 친구를 괴롭히는 아동이 자신감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9) 주위가 산만한 어린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몸을 흔들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지 일에 쉽게 싫증을 낸다.

주위가 산만하다고 하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주의 집중폭이 좁고 산만한 경향이 있다. 미지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강한 시기이므로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혹은 호기심에 의한 활동성이 질문으로 나타나서 어른들에게 질문공세를 퍼는 것이 보통이다. 활동성에서도 지능과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활동성 자체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소 자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애정결핍에 의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전제하에 어린이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기 보다는 허용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놀이에서 주인공이 되려는 아이

대체로 자아의식과 자기주장이 강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인격이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교만하고 욕심 많고 양보심 없는 문제를 지닌 아동으로 자랄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부모가 과잉칭찬과 허용적인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주인공으로 상전으로 취급

하는등 모든것이 아동위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이 가정밖에서도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지도방법으로는 아동의 적극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남을 돕도록 하여 반의 리더를 만들어 주는등 건강한 인성발달을 유지한다. 예로는 "그림을 열심히 그렸구나! 다른 친구들의 그림과 나란히 벽에 붙여두는게 어떻겠니"등으로 일한것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칭찬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준다. 훌륭한 사람들도 다른 많은 것을 잘 못했지만 한두가지를 아주 잘했음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는 만들기를 잘하는데 철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영희는 노래를 잘해"이런 경우에는 아동을 제일 먼저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아동에게 져거나 주인공 역할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적절한 위로를 해주고 양보와 자제를 했을때는 긍정적인 강화를 해준다. "너는 많이 이겼잖아,다른 아이들도 간혹 이기게 해주자.", "참 잘했어,그림만 잘 그리는줄 알았더니 참을줄도 아는구나"

마지막으로는 차례를 기다리며 다른 친구의 활동을 감상하는 동극,노래자랑 시간을 갖는것도 도움이 된다.

(11) 반항적인 어린이

무엇을 시키든지 싫다는 말을 앞세운다. 교사말도 안듣고 친구들과 협조하기 보다는 놀이 시간에 제멋대로 행동한다.

유아기때 신체육구의 자연스런 표현으로 제1반항기가 시작될때 대개의 경우 1년정도 계속 되다가 점차적으로 센찰아 지게 된다.

처음엔 길 가운데서 일부러 놀고,왼벽에 크레용으로 장난을 하다가 점차 어른의 지시나 명령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이 시기에 싫어하는 반응에 대해서 나무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반항적인 행동은 강한 의지를 키우는 원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거부반응을 너무 제지하거나 격어버리면 의지 박약한 사람이 되기 쉽다. 이런 행동의 어린이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것이 중요한 원인이므로 부모가 차분히 상대해줌과 동시에 또래끼리 접촉을 통하여 집단 규칙을 지켜봄으로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항적 경향은 점차 감소될 수 있다.

(12) 싸움이 잦은 어린이

지나가다 부딪혀도 싸움을 걸고,줄서있는곳에 끼어들면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싸움하고,만들거나 그림그리기에서 실패하면 옆의 친구 탓으로 돌리면서 공격적으로 싸우게 되고,힘없고 약한 친구를 건드려서 싸움을 하는등 타협적인 놀이가 잘 진행되지 않는 어린이이다.

원인으로는 먼저 열등감이 있는데 성인에게 구지함을 듣거나 침구들로 부터 놀림을 받게 되면 난폭해진다. 예로 왼손잡이 아이가 그림을 서투르게 그렸을때 친구들이 놀리면 다른 아이의 그림을 찢어 버리며 싸움을 일으킨다.

다음으로 부모의 거부와 엄격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데 부모가 비웃고 무시,금지하는등 거부적 태도를 취할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지며 거기서 받은 상처가 친구를 방해하고 비동조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가져 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질투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인데,성인의 불공평한 취급에서 기인한다. 이런 어린이 일수록 성인의 감정적 움직임에 민감하고 상처받기 쉽다.

교사는 재판적,권위적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유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열등감이 원인으로 나타나면 교사의 따뜻하고 여유있는 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아동의

표현적 행위에 즉각 반응해서 야단하면 더욱 난폭하고 싸움을 자극하게 된다.

싸움이 전개되었을때 싸운 동기를 이야기 하고 잘못된 점을 어린이 스스로 인정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교사의 성급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지적하거나 아동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한 아동의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나타내는 태도는 피해야 한다. 또한 동극,인형극을 이용하여 공격당하는 어린이의 기분을 모두에게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동을 자연스럽게 비강제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15 금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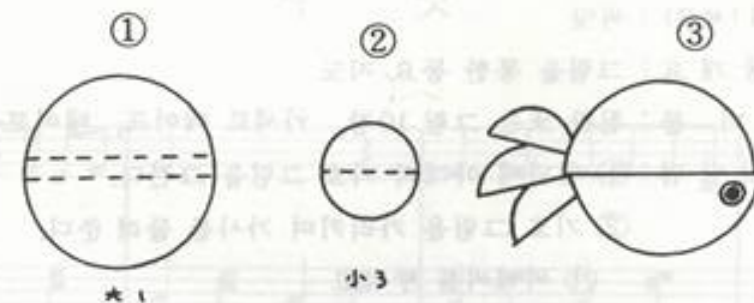


최근 단국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민호 교수는 '미술교육론'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술교육은 인간의 감성, 상상력,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미술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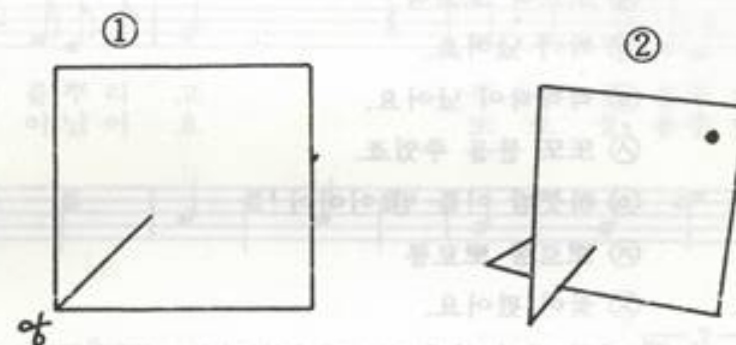
김민호 교수는 '미술교육은 인간의 감성, 상상력,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미술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 금붕어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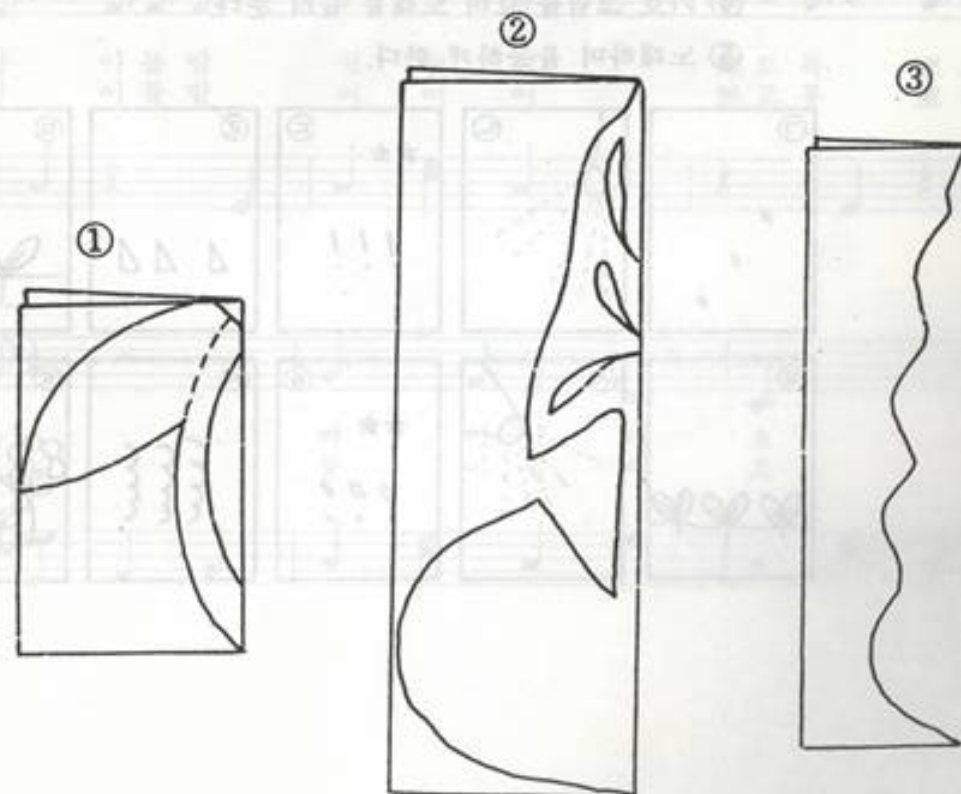
금붕어



물고기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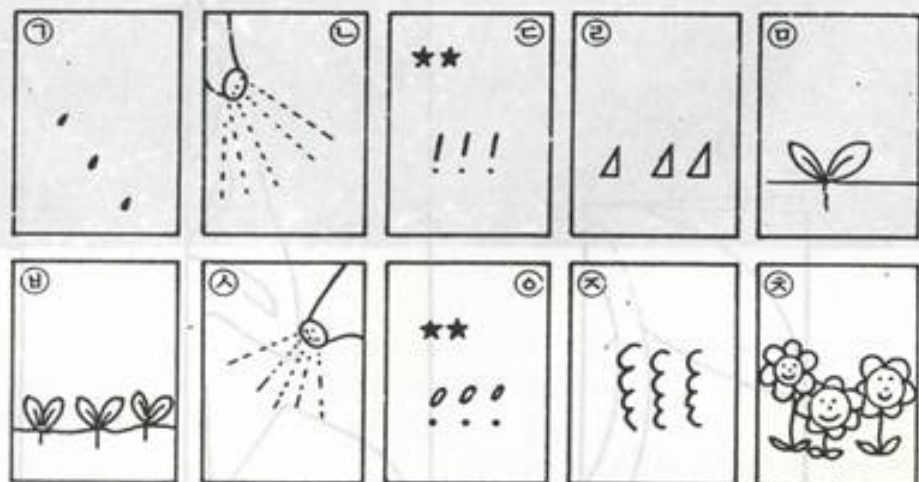
프로그램 ⑧

1. 주제 (제목) : 씨앗
2. 활동 개요 : 그림을 통한 동요 지도
3. 준비물 : 칠판 또는 그림 10장,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 리코더
4. 도입 방법 : ① 칠판에 아래의 기호 그림을 그린다.

② 기호 그림을 가리키며 가사를 들려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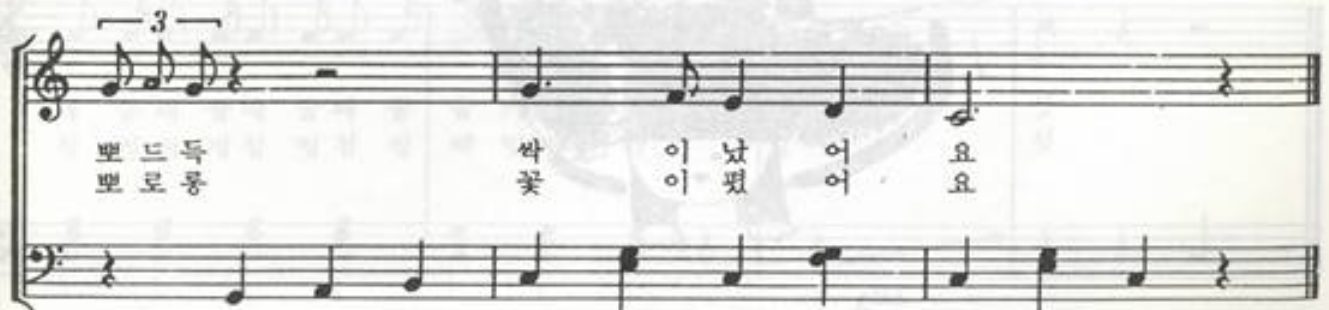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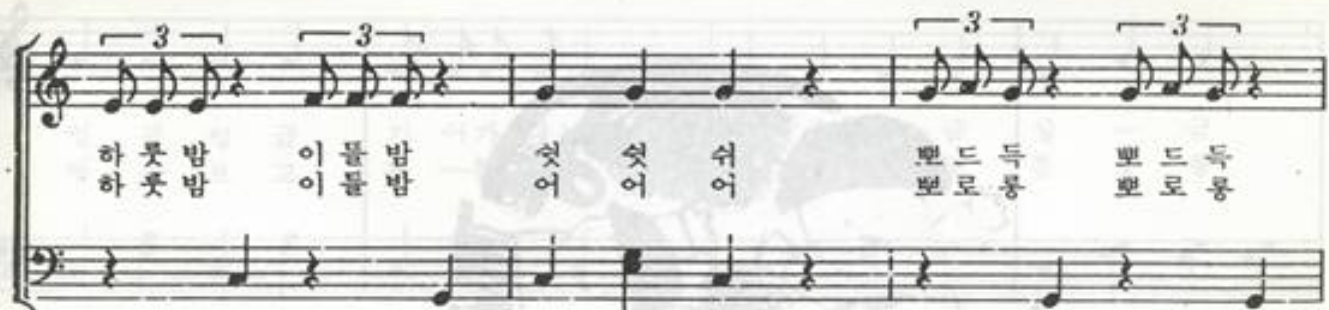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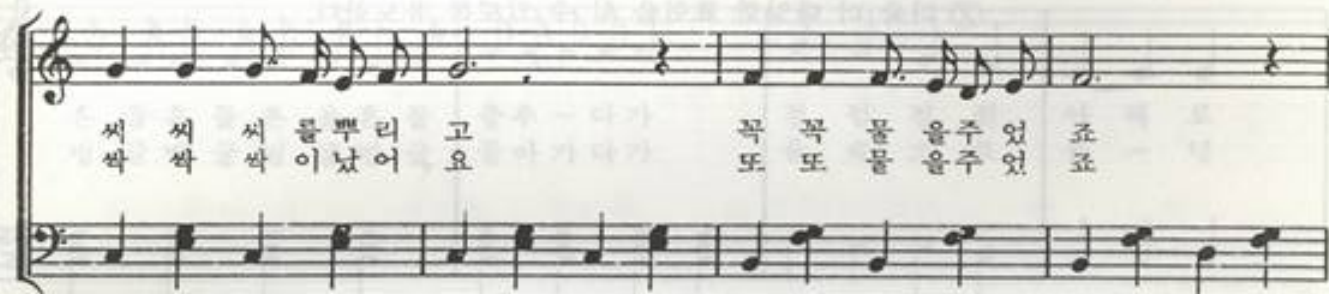
- ㉠ 씨씨씨를 뿌리고
- ㉡ 꼭꼭 물을 주었죠.
- ㉢ 하룻밤 이틀 밤 쉬쉬쉬!
- ㉣ 뽀드득 뽀드득
- ㉤ 싹이 났어요.
- ㉥ 싹싹싹이 났어요.
- ㉦ 또또 물을 주었죠.
- ㉧ 하룻밤 이틀 밤 어어어!
- ㉨ 뽀로롱 뽀로롱
- ㉩ 꽃이 폈어요.

- ③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사와 기호 그림을 연결시킨다.
- ④ 기호 그림을 보며 노래를 들려 준다.
- ⑤ 노래하며 율동하게 한다.



씨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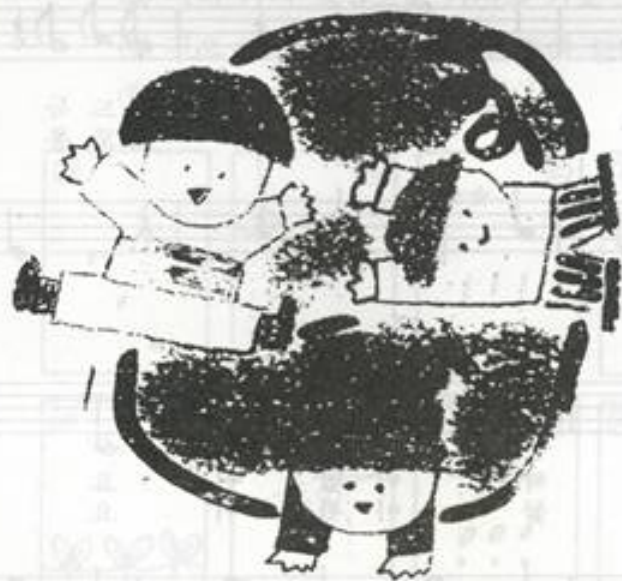
김성균 요·곡



4) 동요를 통한 신체 발달

프로그램 28

1. 주제 (제목) : 통통통
2. 활동 개요 : 노래를 통한 신체 발달, 대근육 운동하기, 기본 동작하기
3. 준비물 :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 리코더
4. 도입 방법 : ① 테이프를 틀어 주며, 노랫말에 맞춰 움직이게 한다. 뛰어보기, 춤추기, 기어가기, 굴러가기, 갑자기 일어서서 멈추기, 걷기, 돌기, 발구르기, 팔구르기 등을 재미있게 도입한다.
② 더욱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통 통 통

김성균 요·곡

통 통 통 - 높 이 뛰 다 가 살 살 동그 랄 게 뛰 다 가
하나 둘 셋 셋 하 게 걷 다 가 깡 총 깡총 깡총 뛰 다 가

흔 들 흔 들 흔 들 흔 들 춤 추 - 다 가 점 점 점 점 아 래 로
빙 굴 빙 굴 빙 굴 빙 굴 돌아 가 다 가 물 속 으 로 풍 - 덩

엉 금 엉 금 기 어 가 다 가 살 금 살 금 살 - 금
땅 을 보 고 통 - 통 - 통 하 늘 보 고 통 통 통

매 굴 매 굴 매 굴 매 굴 굴 러 가 다 가 일 어 섰
침 빙 침 빙 침 빙 침 빙 해 엄 치 다 가 일 어 섰

gliss.

프로그램 29

1. 주제 (제목) : 밀림으로
2. 활동 개요 : 노래를 통한 신체 발달
3. 준비물 : 카세트 테이프, 테이프 리코더
4. 도입 방법 : 테이프를 들려 주며 노래에 맞춰 움직이게 한다.

- ① 팔높이기
- ② 팔굴리기
- ③ 팔펴기
- ④ 몸흔들기
- ⑤ 허리흔들기
- ⑥ 손목구부리기 등을 재미있게 도입한다.



밀림으로

김성균 요·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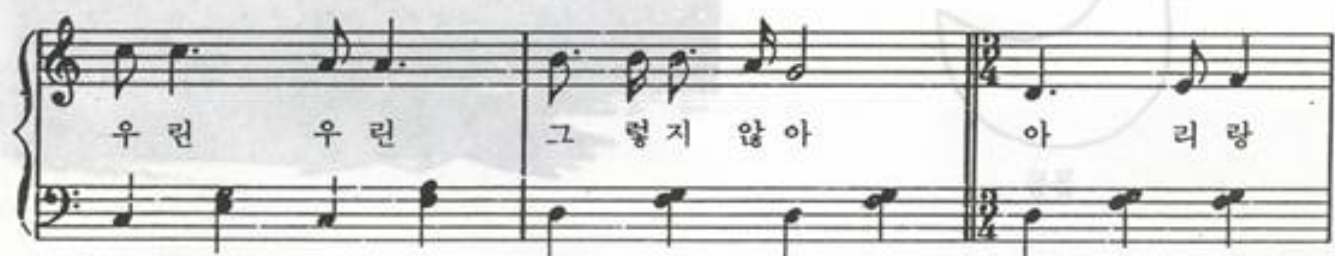
프로그램 39

1. 주제(제목) : 우리 그렇지 않아
2. 활동개요 : 노래를 통하여 민족적 리듬과 춤을 경험하게 한다.
3. 준비물 : '우리 그렇지 않아' 악보
4. 도입방법 : ① 처음부터 노래하며 율동을 보여 준다.
② 유아도 따라서 율동하게 한다.
③ 유아도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게 한다.



우리 그렇지 않아

양한나 요
김성균 곡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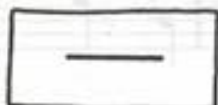
• 아래 모양대로 오려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어 봅시다.

부리

날개



몸통



받침

병아리



닭



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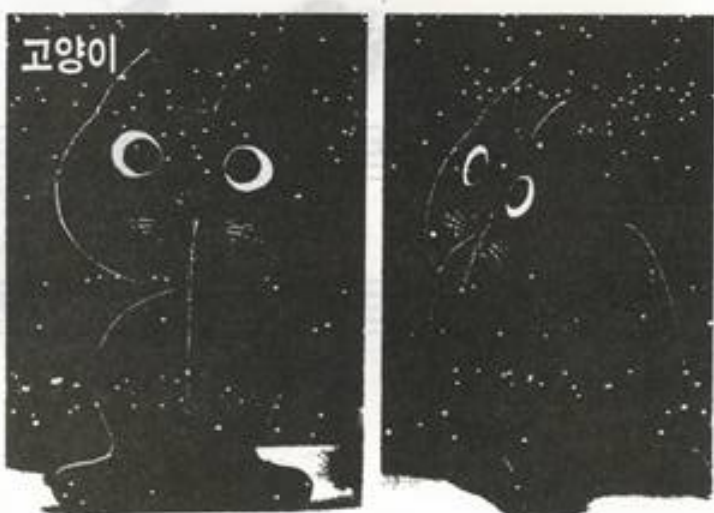
꼬리

다리



몸통

고양이



얼굴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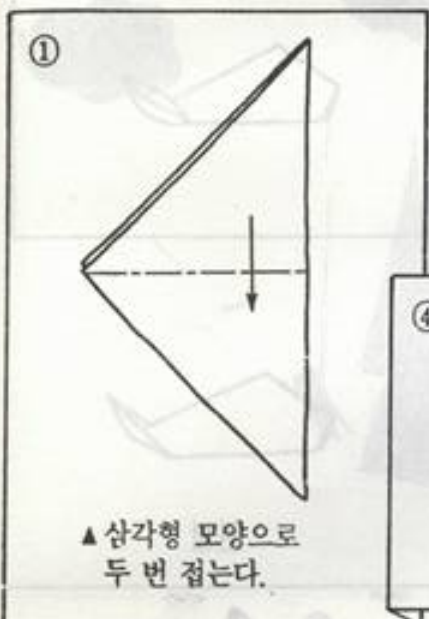


몸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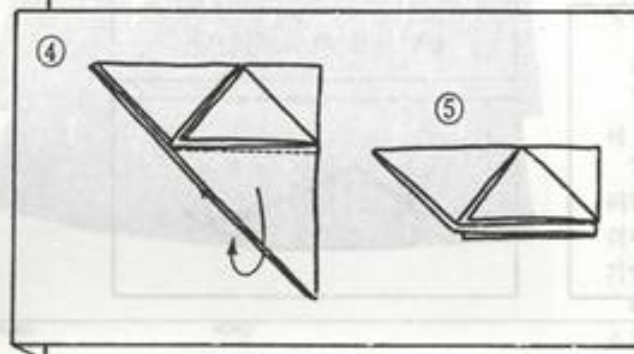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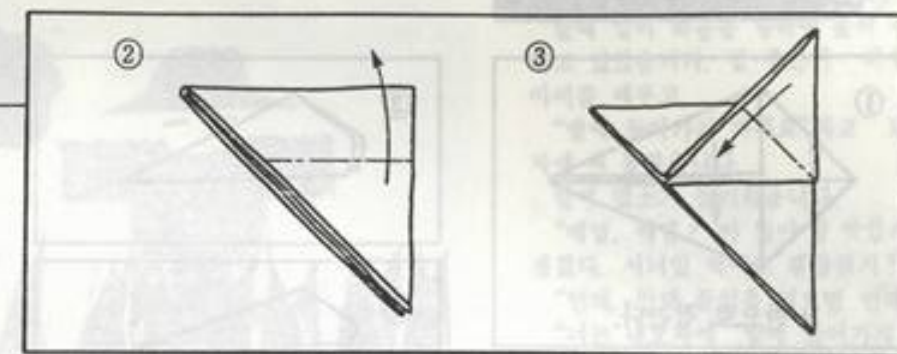


꼬리

• 메뚜기



▲ 삼각형 모양으로 두 번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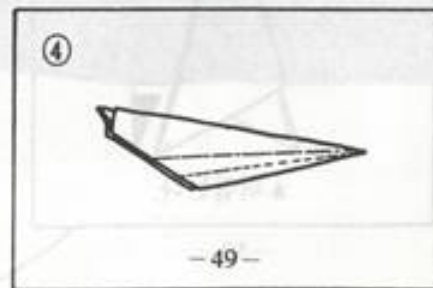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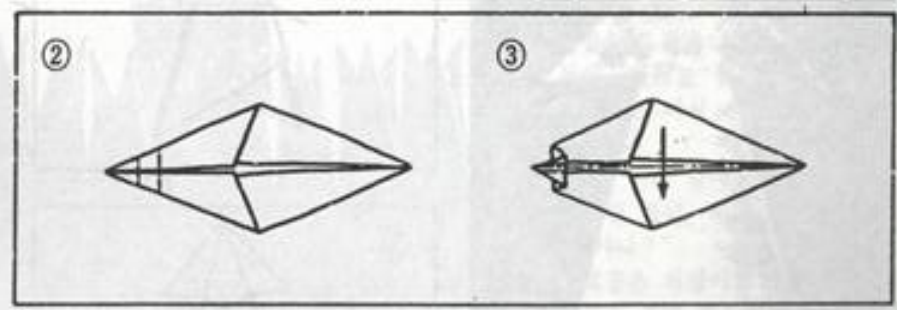


완성

• 귀뚜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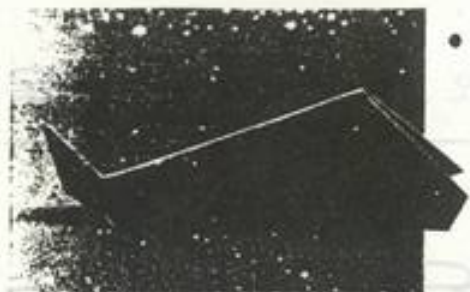


▲ 화살표 방향으로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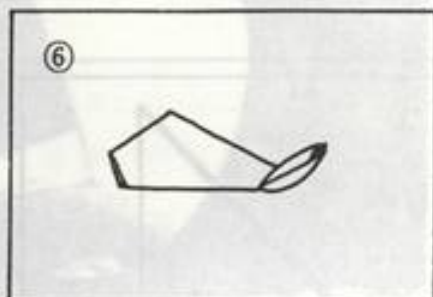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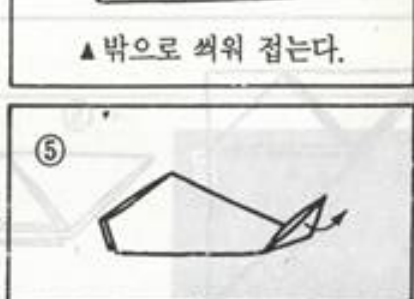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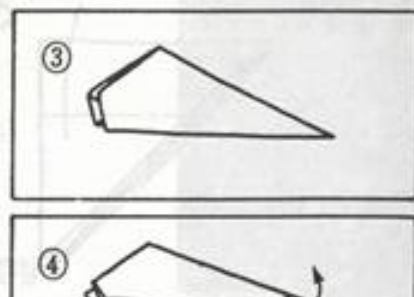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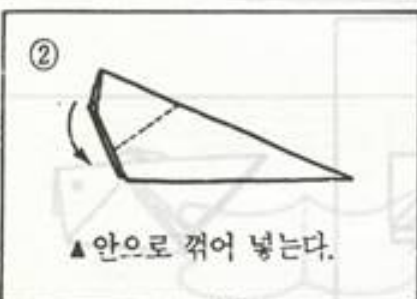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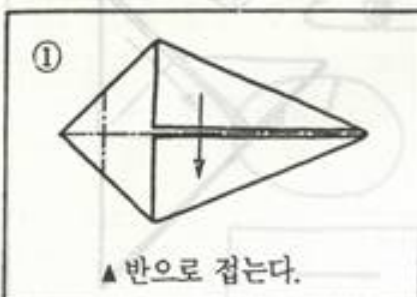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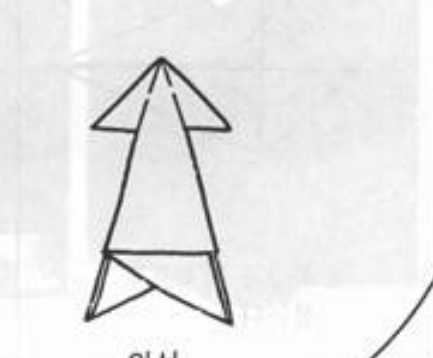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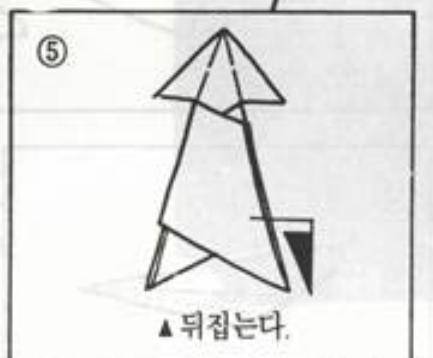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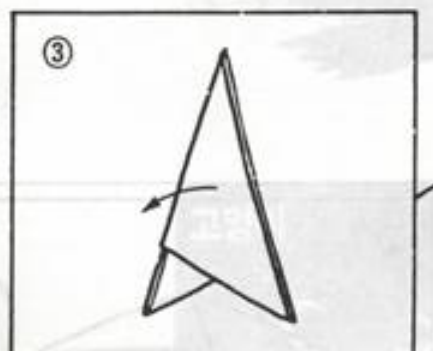
• 고래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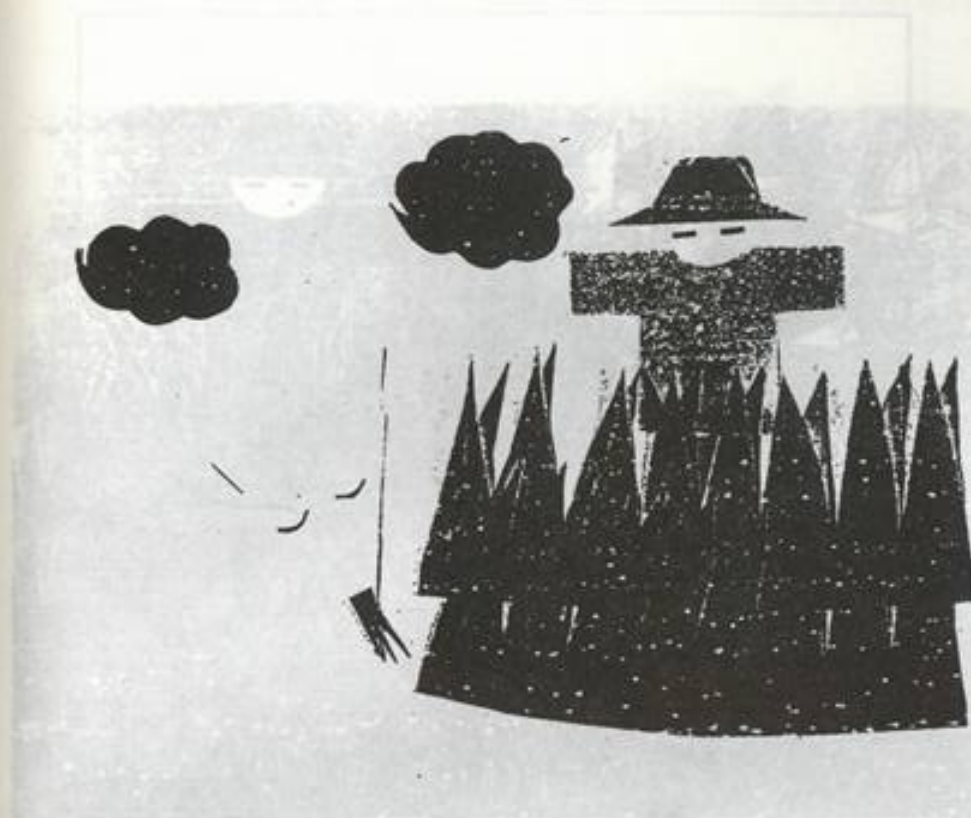


•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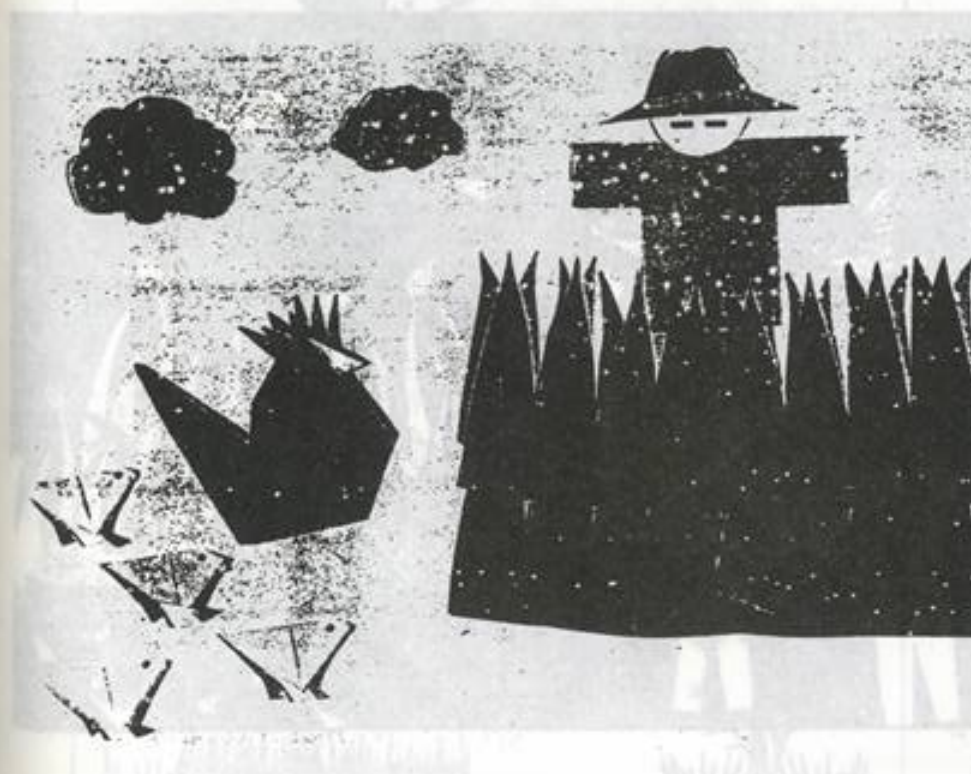


〈동화자료〉

※ 밭에 들어가면 안돼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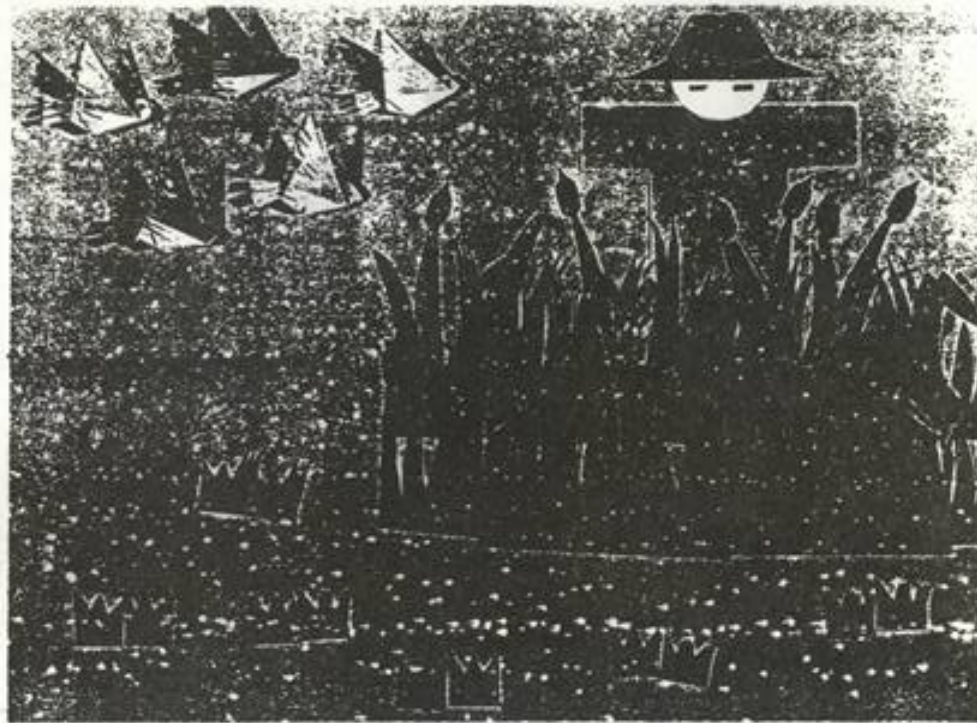


밭에 밀이 하늘을 향하여 높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밭 주인이 허수아비를 세우고,
“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모자에 씨 붙였습니다.
밭에 염소가 놀러왔습니다.
“매염, 매염! 아 일이 참 맛있게 생겼다. 서너일 먹어도 괜찮겠지?”
“안돼, 안돼 풀잎을 먹으면 안돼.”
“너는 내모자에 ‘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어진 것도 못 읽었니?”
허수아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 정말 그렇게 써어있군. 그런데 왜 들어가면 안된다는거니?”
“잎들을 먹으면 이삭이 만나와 그러면 밀을 거둘 수가 없게 되지. 그러니까 저어쪽 언덕너미에 가와, 거기엔 연한 풀이 많으니까”
허수아비 아저씨의 말을 듣고 염소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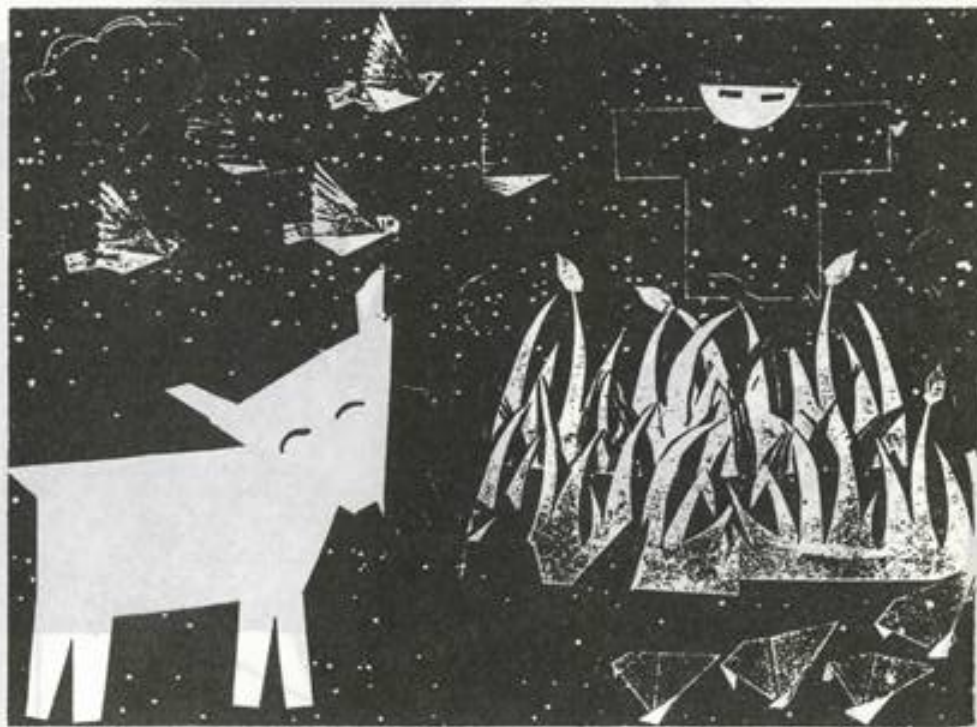


조금후에 암닭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허수아비 아저씨는 다시 암닭을 막았습니다.
“안돼, 안돼 밭에 들어가면 안돼.”
“꼬꼬대 꼭꼭, 밭에 들어가면 왜 안되는거니?”
“너희들은 지렁이를 찾으려는 거지! 흙을 파면 뿌리가 말라 죽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말고 저 갯벌에 가와, 거기엔 맛있는 지렁이가 많으니까.”
암닭은 병아리를 데리고 꼬꼬대 뻑뻑한 한줄로 나란히 서서 갯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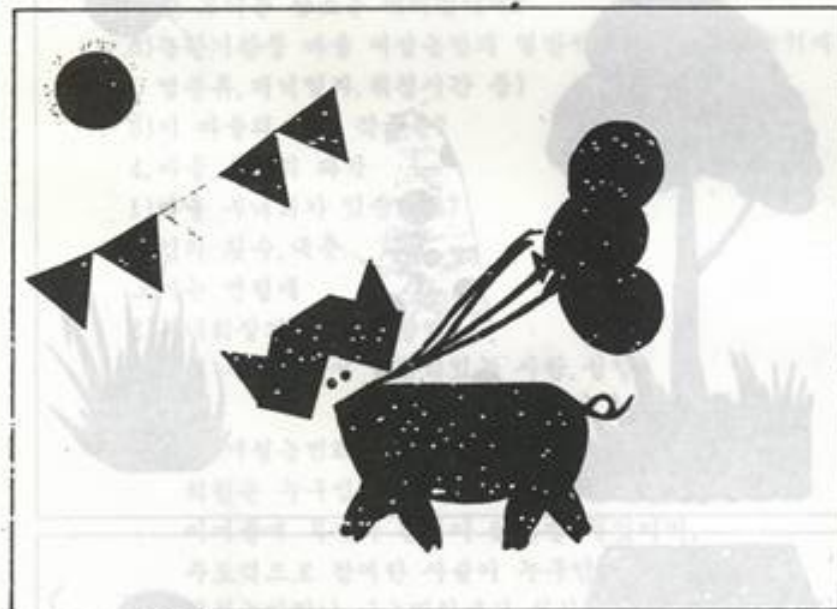
하늘에서 종달새가 지지베베 노래를 부르며 밭으로 날아왔어요.
「아이 어찌나! 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씨 붙였네」
허수아비 아저씨 모자에
“종달새야 안들어가면 될 것 아냐? 걱정할 것 없어”
“그렇지만 우리집은 이 밭안에 있는걸!”
“아아 집이 여기야?” 그럼 들어가도 좋아. 참 종달새는 밭에 집이 있었지”
밀밭에는 엄마 종달새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달새는 종종종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있다가 허수아비 아저씨가 서 있는 길로 염소가 돌아왔습니다.
“허수아비 아저씨 고마와요”. 맛있는 풀을 많이 먹고 왔어요”
암탉과 병아리들도 얼마후에 돌아왔습니다.
“고마와요. 정말 갯변에는 맛있는 지렁이들이 많이 있었어”
염소와 암탉의 말을 듣고 허수아비 아저씨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밀밭에서는 종달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염소도 암탉도 병아리도 모두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수아비 아저씨의 얼굴에는 저녁 햇빛이 빨갛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꼬마돼지 꿀꿀이는 달음박질하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합니다.
내일은 운동회날이기 때문에 꿀꿀이는 기뻐서 어쩔줄을 모릅니다.
꿀꿀이는 재빨리 도시락을 먹어치우고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은 운동회 날이다.
오늘은 실컷 연습을 해둬야지.
도시락을 먹은 뒤이기 때문에 다른어린이들은 방 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는 꿀꿀이 혼자만 있었습니다.
달리기에 마침 좋다고 생각한 꿀꿀이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꿀꿀아. 너 혼자서 연습하니?
마당에 핀 꽃이 웃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하고 내기할테나?
고추잠자리가 날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좋아. 꿀꿀이와 고추잠자리는 달리기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추잠자리는 술술 날아갑니다.
꿀꿀이도 지지않게 뒹뒹뒹 달립니다.
술술 뒹뒹뒹 술술 뒹뒹뒹

꿀꿀이는 운동장을 세바퀴 네바퀴 달렸 습니다.

그런데 꿀꿀이의 얼굴이 어쩐지 이상해 졌습니다.

그리고 꿀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꿀꿀이는 배가 몹시 아팠던 것입니다.



꿀꿀아 뭘일이니? 배가 아프나?

고추잠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꿀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기다려. 의사선생님을 모셔 올게."

고추잠자리는 재빨리 기린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기린 선생님은,

"꿀꿀이는 도시락을 먹고 나서 곧 달렸 기 때문에 배가 아파진거야. 힘차게 달 리 는건 좋지만 다음부터는 도시락을 먹은 뒤 에는 쉬도록 해야해요"하며 꿀꿀이를 업 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농민반 답사조사서

답사 조사자 : 단대 학번 이름

1. _____군 _____면 _____마을

2. 만난 사람(직책, 나이, 성명)

3. 마을 여성농민 상황파악

1) 여성농민의 숫자 _____ 마을전체인구중의 비율 _____

2) 연령대 20대 _____명 30대 _____명 40대 _____명

50대 _____명 60대 이상 _____명

3) 일반적 자녀수 _____명

4) 잘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까?

그 구성은 어떤 사람이며,

잘 모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5) 농활기간중 마을 여성농민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는?(예: 기상시간, 작 업종류, 저녁일과, 취침시간 등)

6) 이 마을의 주요 작물은?

4. 마을 부녀회 파악

1) 마을 부녀회가 있습니까?

모임의 횟수, 내용.

모이는 연령대

2) 부녀회장의 성향, 영향력

3) 그외 부녀회에서 영향력있는 사람, 성향

5. 마을 여성농민회가 있습니까?

회원은 누구입니까?

이 마을에 투쟁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성농민회나 군농민회에서 실시한 교양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지, 있으 면 누구입니까?

마을 여성농민의 전체적인 성향은 어떠합니까?

6. 이전에 농활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여성농민반은 어떠한 활동을 했고 마을 여성농민의 평가는 어떠 했습니까?

7. 마을 여성농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8. 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한 마을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9. 여성반활동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 분은 누구입니까?

10. 여성농민반 반활동이 가능한 시간대는 언제이며 사용할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동반 답사 조사서

답사조사자: 단대 학번 이름

1. 군 면 마을

2. 만난 사람(직책, 나이, 성명)

3. 전체 아동의 수

아동의 연령대:

미취학 아동 명

국교 1-3년생 명

4-6년생 명

남녀 비율: 여 % 남 %

3. 등교시간(연령대별로)

하교시간(연령대별로)

4. 하교이후 주로 하는 놀이나 하는 일(오락, 학원, 집안일 등)

5. 유아원이 있는가?

운영시간은?

6. 상설 탁아소 내지는 농번기 탁아소가 있는가?

운영시기 내지는 운영시간은?

무어 기분 내키는대로 적어 보시구려